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789 1982년4월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pril 5, 1982

APR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
8 FLOOR
TORONTO, ...

실협 여론조사결과에힘입어
불매운동 신중 검토
팝회사 횡포 대상 시기는 미정

구분	주구매력	월구매력	연구매력
응답자 241명의 총 구매력	$1,071,500.	$4,549,625.	$55,718,000.
1개 스토어의 평균 구매력	$4,446.00	$18,878.11	$231,195.02
현회원 총수 650명의 구매력	$2,902,250.00	$12,334,562.00	$150,917,000.00
총한인스토어의 구매력 비회원포함 1,000개, 이상 명명	$4,465,000.00	$18,976,250.00	$232,180,000.00

◇ 협회회원들의 구매력 통계.

소인국 왕자들이 똘똘뭉쳐 거인에게 선전 포고할 직전에 있다.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차선검회장은"그동안 오래 참아왔으나 이제 대결의 시대는 왔다. 멀지않아 소프트 드링크 회사하나를 선택, 그들의 부당한 처사를 고쳐주기 위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30일 말했다.

코카콜라, 펩시등 음료회사들은 지금까지 주로 체인·스토아등과 협상, 특별가격등 정책을 쓰면서도 교민들의 개별적 버라이어티 스토어는 무시해 왔다.

지난 3월에 집계된 여론조사에서 회원들의 81%는"협회가 불매운동을 벌이면 적극호응 하겠다"고 응답, 힘을얻은 실협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 투쟁을 준비중인 것이다.

음료회사들은 성수기에 스페셜 가격의 팝을 안주기도 한다. 특히 회원들의 큰 불만을 사는것은 트럭운전수(딜리버리·맨)의 횡포, 보통 불친절한 이들은 팝상자를지하실에 내려주지 않고 상점 아무데나 놓으며, 숫자를 속이거나 빈병을 빨리 가져가지 않아 애를 먹이기도 한다. 이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담배등을 건네 주기도 한다. 협회 간부들은 팝회사와 실력대결에서 회원들의 뒷받침이 적어 실패할 경우 협회가 와해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그간 실력이 양성되기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대상회사는 간부들이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같은 협회측의 특정상품 불매 움직임에 대해 본사가 2일 접촉한 6개의 일반회원역들"당장은 우리 회원들이 타격을 입을지 모르나 더좋은 미래를위해 단결해서 우리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말 오래동안 참아왔다"는 요지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7일 발표된 실협 사상최초의 여론조사에는 6백 회원중 241명이 응답, 41%라는 놀라운 참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 조사방법이 이번과 같이 우편에 의한 조사일 경우 응답률이 10%이상이면 성공적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신문의 실협뉴스란 개선문제, 협동조합 추진문제, 물품협상의 방향, 악성적 도매제조업자에 대한 불매운동등 회원들의 단결력 발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 실협 집행부가 81년12월 선거공약으로 내건 협동조합 설립추진 문제는 곧 완성단계에 있다.

83년초가 출범목표인 협동조합은 이번 조사에서 회원들의 78%가 참여를 표시, 집행부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차회장은 "협동조합은 50~1백만달러의 자본금으로 83년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협은 밀크, 빵등의 협상은 거의 끝내고 현재 담배와 팝 문제를 태클하고 있다. 담배는 도매가격의 10%, 그로서리는 3%의 리베이트를 회원에게 주는 협상이 모 도매상과 완결단계에 있다. 이 협상은 완·빌링·시스템을 채택, 회원들이 물건값을 협회에 지불하면 협회가 도매상에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같은 제도는 협동조합 설립시에 대비, 자체훈련을 겸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 발족이후 최초의귀중한 통계자료가된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회원의주평균 구매력은 4,400달러, 650명회원의 총 주평균 구매력은 불경 290만달러, 월평균 구매력은 1,200만 달러나 된다.

조기연 부회장 김풍수 총무, 정상우 신협뉴스 편집장이 여문석 기획실장과 함께 연2백시간을 소비한 이 여론조사는 회원의 연령등 신분에 관한 설문이 빠졌으나 조사결과는 협회의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미문화원 방화수사 일단락
원주교구가 범인 자수권고

(서울2일=연합)부산 미문화관 방화사건의 수사가 문부식, 김은숙등 범의체포로 일단락 지워졌다.

1일 전국수사본부는 캐톨릭 원주교구(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문, 김 두사람에 자수를 권고했다고발표했다. 고려신학대 3년생인 두사람은 원주교구 부근에서 경찰에 잡혔었다.

수사본부는 사건전모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미문화원 방화및 반정부, 반미, 전단 살포혐의로 체포된 학생들은 모두 7명이다.

회사들 퀘벡을 떠나
언어, 세금, 정치불안이 원인

(몬트리얼)몬트리얼에본부를 두었던 회사들이 언어세금등 때문에 다른주로 이동, 6,5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한 조사 보고서는 만약 퀘벡이 과중한 세금부담, 영어사용학교의 확장과 이에따른 법률완화및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적 침체에서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이유가 몬트리얼본사 고급간부들의 불만을 자아내 본사를 옮기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78년이후 퀘벡주에 본부를둔 108개의 회사중 지금까지 28개가 퀘벡주를 떠났으며 대부분은 온타리오주로 옮겨왔다. 이 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3년간 남은 본사중 24%가 더 이전할 것이라고 통계를 근거 예측하고 있다.

이 조사를 후원한 한 재벌기업의 고급간부는 과중한 세금부과가 퀘벡 경제성장의 가장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퀘벡정부는지난해 정부지출 삭감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13.9%나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1년에 개인세로 $18,000이상 내는 퀘벡주민은 온타리오주에 비해 20% 많다.

정부 의사봉급 일방결정
분격한 의협 강력항의 다짐

온타리오주정부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온타리오주건강보험제회(OHIP)을 통해 받는 진료비를 의사들과 합의를 보지못한채 임의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최근 수주간파업을 위협하며 임금인상운동을 추진해오던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징집" 당했다고 분격하고 있다.

신임·래리 그로스만 보건성 장관은 1일 의회에서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의사들이 OHIP에서 받을 임금을 34%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상조치로 의사들의 경비를 뺀 봉급은풀타임일 경우 현재의 $80,300에서 85년4월1일에는$114,000로 오른다.

지난31일 온타리오주 의료협회(OMA)의 259명 회원들은 일제히 정부측의제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주의회에서 그로스맨 보건장관이 정부측 결정을발표하자 OMA회장 료넬·리스씨는 그로스맨 장관에손가락을 가리키며"이로서온타리오주의 단체협상은 종막을 고하는 것인가라고불었다.

의사들은 정부가 보다나은 대안을 해오도록 압력을 넣기위해 종전에 합의했던것 보다 더욱 강력한 항의운동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프로판 개스차 등장
휘발유가격의 반값

교민들의 차에도 프로판개스통을 달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

온타리오 교통부는 프로판개스로 차를 주행하는것이 돈을 절약할수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현재 이 프로판개스차가 대중화되지는 않았으나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개스와 휘발유 반반씩 쓴차가 1년에 약1,500달러를 절약했다.

교통부는 지난 80년부터 사업용 자동차에 프로판개스 사용을 권장해왔다.

현 프로판개스 가격은 1개론당 95센트이며 휘발유는 1개론당 $1.80나간다.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이사진 확장
자문위 구성

지난3월5일 원장호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한재캐나다 대한체육회(회장: 이병권)는 이사진을 51명으로 확장하고, 교포유지급인사들로 이사회와 집행부를 뒷받침할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구상회(의사), 조한철(전 한인회장), 박인순(한인회장), 장순채(코리아타운 번영회장) 함의현(올림픽후원회장), 장공선(전 캐라반 위원장), 최승락(외환은행장)등이추대됐다.

자문위원들은 15명 으로 구성된 체육회 집행부를도와 앞으로 다가올 제2회캐나다 전국교민체육대회, 모국체전선수단 구성등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줄예정이라고 이회장이 전했다.

◇코인주차장 : 토론토에서는 거의 볼수없는 광경이다. 버팔로의 알버터녹스 갤러리앞에있는 이 주차장에 25센트짜리 동전 셋만 집어넣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나올때도 자동적으로 차가 빠져나온다.(주의) : 버팔로에 갈때 미국동전이 꼭 필요한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코인 머신들은 캐나다 동전들도 그냥 받아들인다. 그 뿐아니라 일부 영화관등은 캐나다 사람을 위해 캐나다 돈도 디스카운트 없이 그냥 받는다. 예를들어 미국 나이아가라시 파인·스트릿에있는 한 영화관은 캐나다돈도 $5 미국돈도 $5를 받는다. 이 영화관은 온타리오에서 볼수없는 영화들만 상영한다.
〈 유승민 기자 촬영 〉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 금주의 행사 ▷
4 월5일~11일

※4월9일 – Good Friday(성금요일)

◇9일(금)하오7시30분 성금요일 수난예배
수난음악 : "보라하나님의 어린양을"
곳 : 토론토 한인연합교회(300 Bloor St. W.)

◇9일(금)하오6시30분 한인신용조합 정기총회
곳 : 신용조합 사무실(641 A Bloor St. W. Tor.)

◇10일(토)하오5시 캐나다 대한부인회 창립총회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10일(토)하오10시 부활성야 가톨릭 행사
촛불행사, 세례식·대미사
곳 : 쎄인·폴성당(83 Power St. Tor.)

◇11일(일)새벽6시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곳 : 써니 브룩·팍(Leslie×Eglinton Ave. E.)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3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3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공 고

아래와 같이 광주서중, 일고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포를 나누고 앞으로 어려운일, 기쁜일 함께하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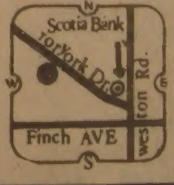
일 시 : 1982. 4월 8일(목)오후8시
장 소 : 아리랑하우스
연락처 : 465-2929 Mr.최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이경태·이현우 사범 직접 책임지도.

KYONG LEE TAEKWON DO CENTER
중앙도장: 2281 YONGE ST. (6Doors North of Eglinton)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E. (Just East of Pharmacy Plaza) 759-25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가톨릭·성공회 통합
난제 많으나 접근시도

영국 성공회와 로마가톨릭사이의 통합이 멀지않은 장래에 실현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예측은 29일발표된 앵글리칸로만 가톨릭국제위원회(The Anglican 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최종 보고서에 근거를 둔것으로이 보고서는 종전의 성체성사(성찬식)에 관한 ARCIC의 협정(71년), 성직자의자질(73년)과 새교회 에서의 권위에 대한 일치된 진술(76년)도 포함한다.

성공회와 로마가톨릭 학자들의 공동모임인 ARCIC는 교황바오로 6세와 전 켄터버리 대주교 마이클·램지경에 의해 66년 처음 소집됐다. 이들은 지난 16년동안 성공회와 로마가톨릭의 중요 본일치사항의일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새로운것은 재결합된 교회에서의 교황권력의 한계와자질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ARCIC구성위원인 학자들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연합의 중심임을 동의하나 교황의 무류성(신앙과 윤리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공표할때 교황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지못했다. 대신 교황을 비롯 주교 성직자및 일반신도를 통틀어 전체교회는 성령(The Holy Spirit)의 조명아래 진리를 발견할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제출됐다.

지역교회들에 대한 교황의 통치권문제도 새로운조명으로 해석, 성공회는 그들 스스로의 자치권을 가지면서 로마가톨릭과 형제애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토론토대주교 카터추기경은"지금까지 나는우리 생전에 양측이 합동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했으나 이번 보고서를 볼때 지금까지의 나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터 추기경은 특별성명을 통해 16년간의 대화에서 성공회측 학자들의 개방적인 태도를 치하하며 "나의 견해로는 성공회 측이 우리 로마가톨릭 보다 더 큰 양보를 한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영국에서도캔터버리대주교이며 영국교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로버트·런씨경은"이같은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는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뜻에 어긋나는 분열을 지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자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성공회는 1534년 그당시 영국왕 헨리8세가 아라곤의 캐더린과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않자, 로마가톨릭에서 이탈해버렸다.

현재 영국성공회는 7 천만, 로마가톨릭은 6억5천만의 신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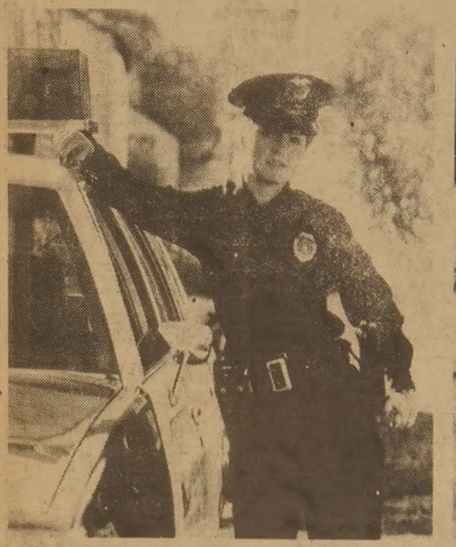
한국 가요레코드구비
노스욕의 핀치도서관

노스욕지구 핀치 도서관에는 한국가요, 동요, 레코드판이 100여장 구비 됐으나 교민들의 애용이 매우 적다.

노스욕 도서관의 박승락씨는 30일"한국레코드나서적등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적이나 레코드 는 핀치도서관(1785 Finch Ave. W.)과 우드뷰 도서관(16 Bradstock, Weston)에 구비돼 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면 백승락씨(전화 667—1065 EX49)에게 연락하면된다.



◆플레이보이에 등장한 여자경찰관—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경찰관 바바라·샤츠가 플레이보이잡지 5월호에 옷을 벗어던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1백48명의 남자경찰관가운데 2명 여자경찰중 하나인 바바라는 그녀의 보스가 이번일에 반대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시카고 〉

◆앳트우드의 장편(〈Life before Man〉의 표지.

마가렛·앳트우드와의 인터뷰 ②

죽음의 임박을 인정할때
인생의 긴박감 짙어진다

죽음

문: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지의 죽음, 자기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한적이 있는가?

앳트우드: 나의소설「상처」는 38세에 암으로 죽은 내가알고 지낸 한 여성을 소재로한 작품이다. 이 여성이 죽은것은 진단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 의사에게 갔을때 그 의사 말이"염려없읍니다.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고 했다. 여섯달후에 다른의사에게 갔더니 그의말이 자기에게 6개월 전에 왔어야만 됐다는 것이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갈때 여러면에서 남은생명을 선용하는 방향으로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음에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여지껏 각별게 보아 넘겼던 많은일들에 대하여소중하게 대처해갈수 있도록준비시켜 준다.

문학도로서 나는 중세시대를 들여다보곤 하는데, 중세인들의 특징적인 태도는 누구나가 언제나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이다.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는 문제는 19세기 보다는 지금이 더 절실한듯 하다. 지금우리는 죽음에 훨씬더 가까이 놓여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들지않는다. 세계가 당장 폭발한다는 그런뜻이 아니라 다만 요새는 옛날보다 집바깥을 나선다는것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것을말하는것 뿐이다. 눈깜짝할사이에 차에치인다. 나는 사람들이 그저 맹목적으로생각을 늦춰먹는 것이라고본다. 사람들은 차에 치일것이라는 그따위 생각이 도무지 싫은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30년 또는 40년을 너끈히 더살게 되리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죽음이란것이 당장에라도 닥칠수 있다고 생각하는편이 우리에게 도움이된다고본다. 그렇게 생각할때 삶을 선용하는 계기가 된다.

문: 인생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인가?

앳트우드: 그뿐이 아니다. 더 많은 모험을 마다하지 않게되며 인생에 대하여 더 긴박감이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문: 당신나름의 가치 체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해볼수 있겠는가?

앳트우드: 여지껏 아무도 내게 제기한적이 없는 질문을 당신이 내게 하고있다. 세상일이란 내 생각에는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간명해 질수만은없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단세포적이며 그 내용이 경직스러운 종교들에 흥미를 못느끼는것 뿐이 아니라그들을 위험하게까지 보는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물론 그속에는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도 포함이된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없이 가령 어떤일이 장래 우리에게 닥친다고 했을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 아닌지는 다 뻔히 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단그 선을 넘어서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도덕이라든가 정치라는것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한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스무명의 다른사람이 죽는다고 했을때 당신은 살인을 하겠는가? 원자탄의 비밀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죽이겠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나선다. 나는 사람이 극한적인 선택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한계상황에 다다르지 않고서는 자기의가치체계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계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다.

우리에게는 보통 선택의 여지가있다. 증거를 대보겠다. 누가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커피에 슬쩍 환각제를 타넣는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트럭이 당신을 덮친다면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치이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경우를생각해보자. 불가리아에서는 이차대전때 단 한사람의유태인도 죽지않았다. 왜 그랬는가? 사회전체가 나치와는 협력하지 않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덴막에서는 48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있다. 그것은 분명히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수도 있다. "보라, 다른나라들에는 그와같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치들이 들어와서는 이래라저래라하는 판국에 무슨수가 있었겠는가?"글쎄,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택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들은협조하기로 선택하였던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관계의 핵심은 사랑여부
결혼은 사랑의 전통적 상징

가정·성

문: 당신은 전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한적이 있다. 가정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앳트우드: 아직 그보다 나은제도를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하여 망치한 말들, 가정에는 폭력이 있다는둥, 가정은 파괴적이라는둥, 계속 말해온것을알고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기르는것이 낫다는 얘긴가?

문: 성에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이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 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앳트우드: 문란한 성생활이 사람들에게 도움이된다고 보지않는다. 남녀할것없이 사람들이 구하는것이 그냥 성행위 만이라고 나는 보지않는다. 나는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보면 그들이 인생의 어느대목에서 적절한 연결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누구와도 사랑의 관계를 성립시키기가 힘이든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그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내게있어서 중요한 점은 관계속에 사랑이 있는가없는가이다. 사랑이 없는관계란 공허한 것이다. 결혼관계속에 사랑이 없을수도있다. 내 생각에는 결혼을했다 안했다, 동성간의 행위다, 이성간의 행위다,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랑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어딘가 우리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인간과의 사이에 지속적이며 서로오가는 정이 있으며서로 아끼며 우리들 생에 의미를주는 그런 관계를 갈망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찾아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사랑의 관계에대한전통적 심볼이 결혼이다. 결혼제도가 발을 들은때도있었다. 중매결혼이 사랑의 관계로서 작용해준 때도있었다. 그러나 나는 빅토리아시대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은 없다. 경하할만한 무엇이 한편에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어둡고 비참한세계가 있는 빅토리아시대상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있다.

그냥 섹스나 실컷 갖자는 사람은 없다. 여성들도 그런데 생각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60년대의 성해방은 여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가져다주었다.

문: 당신은 한사람과 일생을 살아가는 전통적인결혼방식 보다는 같은 시기에는 한사람과만 살되 상대를 계속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관계를 미래의 결혼양식으로 보는가?

앳트우드: 글쎄거기에는 두면이 있다. 당신앞에언제나 진수성찬이 차려져있다면 빵조각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시간을 바칠 필요가 없을것이다만약 하나가 맞지않으면 던져버리고 다른하나를 취할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썩 좋은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살갗을 할켜보라. 거기에 한 전통주의자를 보게될 것이다.

Factory Special Sale

(기간)Apr. 12～Apr. 24(2주간)

Wagner(와그너) 피아노

월～금 : A. M. 9: 00～P. M. 7: 00
토 : 〃 9: 00～ 〃 5: 00

※제한수량이므로 선착순 쎄일합니다.

HEIGHT........40" (101)cm
WIDTH.........58" (148)cm
DEPTH.........73" (185)cm
WEIGHT........682lbs (310)kg
G-185 3 Pedals
Black, Walnut, Ivory
High Polished and Satin Polished.

그랜드피아노
Reg. $7,732
Spec.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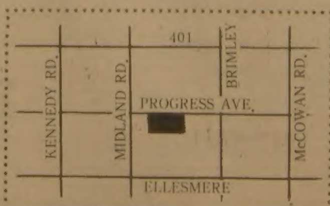
OWNER : 최 덕 준

각 유명업체및 대학교 에서 애용중입니다.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Humber College (Toronto)
Columbus Centre (Ontario)

DISTRIBUTED EXCLUSIVELY IN CANADA BY
YOUNGSTAR INTERNATIONAL INC.

주 소 : 315 PROGRESS AVE.
☎ : 298－2134



John Krautwurst Furnitur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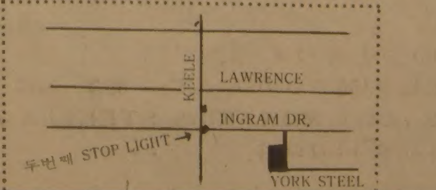
⊙Life-time 가구
◎주문생산(Custom made)
◎금년 토론토가구쇼에서 인기집중
◎카나다유일의 최고급 Contemporary 가구

Mon-Wed 9:00 A.M-5:00 P.M
Thur.-Fri 9:00-8:00 P.M
Sat 10:00-5:00 P.M

◎다이닝·룸 set
◎ Buffet Hutch
◎Living room set
◎베드·룸 set

매니저 : Mrs. Gertrud Krautwurst
주 인 : 최 덕 준

◎고급가구점(로버트·심슨등)에 공급하고 있음.



JOHN KRAUTWURST
주 소 : 67 Ingram Dr.
☎ : 249－8261

베버리힐즈에 典當舖성업

富者도 살기 어려운 世上인가

俳優·변호사·醫師들이 단골 사우디 公主·亡命客도 利用

전당물 99%가 寶石類, 融資최소액 5천달러

[illegible]거나 기타가 진[illegible] 보관대도 없고 간판도 없는 [illegible]가 백만장자[illegible] 영화배우·가수·왕족들[illegible] 플레이보이들이 [illegible]는 베버리힐즈에 있다.

그러나 이 전당포는 세계의 고급이라 할수있고 [illegible]되고있다.

경기후퇴의 여파는 부자 동네에서도 예외는 아닌듯 40년전에 동생과 함께 이 전당포를 개업한 주인 슐츠·칭머만씨는 『세상일이 어려워질수록 우리 사업은 잘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고객으로 다음번 영화촬영을 기다리는 배우·변호사·의사등을 열거하면서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어야할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베벌리융자회사의 융자액은 대개 최소액이 5천달러이며 『보석을 애지중지하는 왕년의 여배우들도 이집의 단골들인데 이들중 일부는 형편이 비참한 경우도 있다』고 칭머만씨는 말한다.

칭머만씨는 한 사우디아라비아공주는 매달 지급받는 1만달러를 과도지출했을때마다 다이어먼드가 박힌 백금팔찌를 들고오는데 『우리는 최고 4만달러까지 빌려줄때도 있다』고 말한다.

보석에 관한 공부를한뒤 8년전 이 사업에 참여한 칭머만씨아들 해리 (31)는 『우리집고객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전당포출입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거래는 사무실정면 맞은편에 있는 3cm방탄유리뒤에서 이루어지며 문은 안에서만 열리게 돼있고 비상벨이 달려있어 2분만에 경찰을 현장으로 불러올수 있다.

칭머만씨는 저당물은 99%가 보석류이며 가끔 흑색밍크를 받는일도 있다면서 이자율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5백달러에 대해 연이율 26.7%인데 액수가 커지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1만달러이상일때는 협상에 의한다고 한다.

저당잡힌 보석류들은 몇달동안 보관되며 이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와서 연체이자를 지불하면 계약을 경신할수도 있으나 저당물의 90%가량은 주인이 와서 되찾아 간다고 한다.

칭머만씨는 고객의 명단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취급했던 가장 아름다운 보석수집물은 파로우크 전이집트왕의 어머니인 나즈리포우아드 여왕것이었다고 말했다.

칭머만씨는 이 수집물에는 『목걸이, 다이어먼드팔, 대형다이어먼드팔찌등이 포함돼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30만달러를 대출해주었다.

그녀는 베벌리힐즈에서 여왕같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는데 가끔 급전을 필요로 할때가 있다』고 말했다.

칭머만씨는 또 20년전에 25달러를 빌어간 아름다운 소녀배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녀가 성공해서 부자와 결혼한뒤 이번에는 대리석만큼이나 큰 진주목걸이를 들고와 3만달러를 빌려줬다고 했다.

칭머만씨는 미소를 띠면서 『내가 처음 이 장사를 시작했을때 고객들은 스미드, 존즈, 브라운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최근 5년동안에는 대부분 고객들의 이름이 이란이나 남미의 낯선 이름이었다』고 말한다.

런던한인회장 배동범씨

(런던=강상권 지국장) 런던한인회의 82년도 제15대 회장으로 배동범씨, 부회장으로 고종호씨가 각각 선출됐다.

새 임원진은 총무에 이광업씨, 섭외에 강상권씨, 재무에 고종호씨, 교육에 정준섭씨, 체육에 강상걸, 청소년부 홍원기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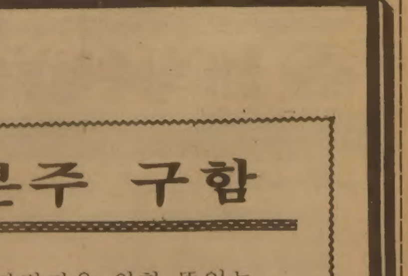
한편, 이사진으로는 하광용이사장 및 강명준씨, 홍성인씨, 마광훈씨, 박옥규씨, 정일송이사 가 확정됐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일보
광 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㉖

보좌신부의 첫 시련

고마태오(중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부리노, 주님께서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고독한 죽음이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면 나의 이 고독과 고통과 죽음을 당신을위해 바칩니다. 이것만이 내가 이 지상에서 단한번 사랑한 사람에게 바칠수있는 사랑의 의리라고난 생각합니다. 부리노, 부디건강하시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이것이 그녀의 편지내용이었네.

"………."

그때 나는 뭐라고 적당한 위로의 말을 찾지못했다. 시가연기를 천정 한구석에 날리며 물기가 서려있는 눈을 나의 시선에서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고있는 그의모습은 내 마음속에 한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우리둘은 잠시 말이없었다. 한참후 시가꽁초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부리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루씨의 장례식날 멀찌감치서 그녀의 관을 바라보며 나는 사나이로서의마지막 눈물을 흘렸었어. 그후 다시는 울지않았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울고싶은 심정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있네그려. 태오신부, 나는 루씨를 사랑했어. 그동안 여자관계는 많았네만은 루씨외에는 다른 여자를 나는 사랑할수가없었어. 현재 아내인 슈잔 도 엄격히 말해 난 사랑하고 있지않네. 미안한 말이지만 그저 동거생활 하고 있는 편이야."

"……."

나는 여전히 묵묵히 있었다.

"이렇게해서 루씨와의사랑은 끝장이났고, 나는 그녀의 무덤에 꽃한송이 놓고 카나다로 귀국했네. 「신앙생활에 정진하기 바란다」는 그녀의 간절한말도 있었지만 나는 루씨의 무덤앞에서 무신론자가 될것을 선언했네. 그리하여 프랑스 야전병원에서 루씨와의 재회를 기회로 마음을 바로잡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전처럼 성실한 신자가 되자던 모처럼의 회심을 남미대륙의 푸른하늘에 날려버리고 돌아와 현재의 나처럼 살고있네. 그 당시만하더라도 모든일이 손에잡히지않고 괴롭기만해 한때는 자살해 버릴까고 생각할 정도였으나 시간과함께 울분도 사라져 없어지고이제는 참고 견딜만하네. 그러나 교회와 신부들에대한 증오만은 여전하네. 나는일생 교회를 미워하고 신부들을 괴롭히며 살아갈결세. 교회와 신부놈들을 루씨를 죽인 살인자로 여기고, 나는 이 한스러운 인생을 마칠결세."

그는 이미 흥분되어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표정에는 증오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그의 그러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부리노가 말한대로 부부가 되었어야만 했을 그와 루씨와의 사랑이 그 어떤 인위적인 섭리로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과함께 분노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끝난 그들의 사랑이 하느님의 섭리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녀로서의 루씨의 죽음이 하느님의 뜻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는 믿지 않았다.

"사람은 항상 일을 망쳐놓지만 하느님은 그일을 항상 수습해 주신다."라는 서양속담이 말하듯, 어쩌면부리노와 루씨의 사랑도 인간들의 그릇된 판단에의해 희생된것이라 볼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부리노와 루씨의 결정적인 구원을위해 달리 섭리하신 결과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루씨가 편지에서 말한것처럼 그녀의 희생과 죽음이 부리노에게 회개의 은총을 받게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때 부리노의 아내 슈잔이 밖에서 놀고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수수한 옷차림에 고생깨나 한 모양으로 무척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피복공장에서 일한다고했다.

오버타임 일하느라고 늦었다고 자기남편에게 한마디 인사한 다음 나에게 묵례로 인사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벌써 여섯시가 훨씬 넘어있었다. 나는 벽시계를바라보며 입을열었다.

"부리노 자네가 겪은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줄지 모르겠네그려. 그러나 앞으로 우리서로 의리있는 좋은친구가 되세나."

"좋아! 신부를 친구로삼아봐야 좋을일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좀다른형의 신부니 친구가 되어줌세. 그런데 당신은 정말 나같은 사람을 친구로 필요하단 말인가?"

(계속)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회 유산

한인회관 확장이전을 위한 모금위원회 구성회의가 또다시 유산됐다.

지난29일 모빌·드라이브 소재 현 한인회관에 모인 교민들은 겨우 13명. 한인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한철)가 준비한 이모임은 지난6일 3.1절 행사후 가지려 했으나「대통령암살음모사건」규탄데모로 1차 유산 됐었다.

회관관리위원회는 곧 모임을 갖고 모금위원회 구성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연습중인 여성 보디빌더－뉴햄프셔대학생인 조시·레미양이 다음 보디빌딩 콘테스트를앞두고 맹연습을 하고있다. 5피트, 85파운드의 자그마한 체구인 레미양은 그녀보다 훨씬 큰 거구의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점차 명성을 쌓아가고있다고.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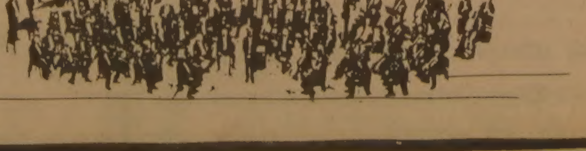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훌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釜山放火犯 4명 검거

졸업생 1명포함 모두 高神大生

主犯 文富軾·愛人등 6명은手配

捜査本部 발표 韓美이간·88올림픽妨害노린 左傾策動

【釜山=盧基昌기자】 부산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이 일단해결됐다. 이사건수사본부 (본부장 韓基烱부산시경부국장) 는 사건발생 12일만인 30일상오 범인일당10명중 방화조 李美玉 (22·여·高神大 의예과2·부산巨堤3洞74) 과 국도극장 불온전단살포조 崔忠彥 (19·〃) 朴願植 (20·〃)、자금책 金화식 (26·高神大졸업) 등 4명을 검거하고 주범 文富軾 (23·高神大4) 과 文의 애인 金恩淑 (24·高神大4) 등 공범2명을 지명수배했다.

◇주범 文富軾 (수배)

◇주범 文의애인 金恩淑 (수배)

경찰은 이와함께 유나백화점 불온유인물살포조로 보이는 최수화와 김영현등 4명도 수배하는한편 文의집에서 범행때 사용한 언더우드社타자기1대 통일자판 한글타자기 1대 이동식롤러한일동사판 불온유인물 2종, 불순의식화 학습노트등 10여점을압수했다.

수배중인 주범文富軾은 순중 일당으로 지난해검거된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의 범인 나다교포 文智軾 (36) 의 사촌동생으로 밝혀져 수사본부는 文등이 검거되면 국제적인 배후관계가 밝혀질것으로 보고있다.

수사본부는 이들 범행에대해 『한미간을 이간 시키고 88서울올림픽등을 방해하려는 좌경불순세력의 책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한미간을 이간질하고 88올림픽유치를 반대했으며 북괴에 동조하는 전단을 살포한점으로 보아 캐나다를 거점으로한 대통령위해음모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것으로보고있다.

범인들은 모두 高神大학생들로 文을정점으로 지난3월초 신학기때 생별이라는 명칭의 불온서클을 조직해 학교에 등록하려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등록을 거부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중이던 李鎬韶 (24) 을 서울에서 검거, 부산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수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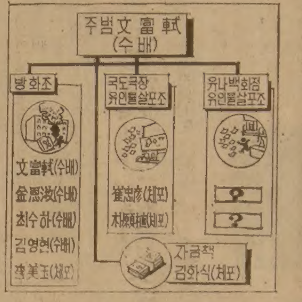
拘束·手配者명단

◇구속자▲李美玉(21·高神大의예과2년·부산東萊區巨堤3洞740) ▲崔忠彥(19·〃·부산南區大淵4洞115·9) ▲朴願植 (20·부산中區大廳洞4가3)
◇수배자▲文富軾(23·고려신학대4년·부산西區峨嵋洞2街41) ▲金恩淑(24·〃·주범文의애인·부산北區巖尼洞454의7) ▲박홍근(24

◇공범李美玉 (검거)

◇공범崔忠彥 (검거)

◇공범朴願植 (검거)



主犯은 「危害」관련 文智軾의 4촌

81년 醫豫科신설

이웃申告로 朴願植등 追跡

捜査협조 감사 徐內務담화

휘발유 旅館地下室에 숨겨

文의 자취방에서 豫行연습

韓銀、6百億 긴급지원

全額 중소기업貸出케

美의 對韓방위公約은 확고

全大統領、레이건親書 받아 修交 百돌 友好강화도

◇全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에게 勳章을 수여하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30일 오 청와대에서 제14차 韓美 연례安保협의회의에 참석차 訪韓중인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을 접견하고 保國勳章 統一章을 수여한뒤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간의 安保협력증진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환담 끝난뒤 대접견실에서 와인버거장관과 30분간 환담하…

레이건大統領 親書全文

大統領각하 美國국민을 대표하여 본인은 韓美修交 1백주년을 축하하면서 兩國간의 계속적인 友好관계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科學기술 硏究개발 올 百8개 課題선정

社會漫評

봄이 달려온다…

地平線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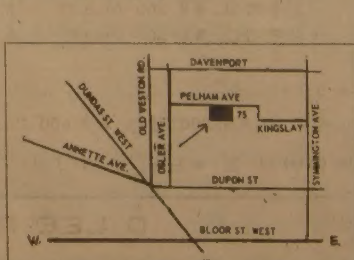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영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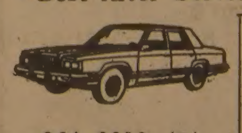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Annette's Donuts Ltd.
=QUALITY·SERVICE, RELIABILITY=
◎도넛츠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온갖 종류의 도넛츠를 취급합니다.
● YEAST FILLED 종류
● YEAST RAISED 종류
● FANCIES 종류
● 각종 CAKE 종류
● 스페샬 JELLY FILLED CAKE 도넛츠 종류
● CRULLERS 종류
● MUFFINS 종류



75 PERHAM AVE. TOR.
☎ : 656-3444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 (B)
439—5030 (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釜山 放火사건 追跡記 <取材기자放談>

리스트에 없는 「新興불순세력」 搜査애로

犯行12일만의 凱歌

—부산美문화원방화및불온유인물사건의 범인일당은 3명이 사건발생 12일만에 검거돼 범행전모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범文富軾등이 검거되지않아 정확한 배후조직등이 밝혀지지않았지만 이들의 범행 동기가 「한미간의 이간과 88서울올림픽방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하고있었다」고 밝혀져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군요.

—특히 주범 文은 캐나다내에서의 대북괴위해사건과 관련, 국내에서 검거된 터론토교포 文富軾(36)의 4촌동생이며 이들이 모두 허명과 테러가 정치의 원동력이라는것을 신봉하는 「勞動戰線」에 관련된 반사회·반국가적인 신념을 지닌 불순분자들이란 점에서 충격이 더 한것 같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쉽게 사건이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당장 光州美문화원방화사건의 주범 「金현장」이 지명수배됐고 …

「對共사건」규정 全搜査官 동원

丁淳喆등 수배인물 無關밝혀져 한때 長期化우려

汎國民的관심… 提報 5백80건

학생對象 수사신중

市內타자기 總試驗

記者통제 取材지장

美문화원서도 환호

범인체포 시간문제

搜査費는 남아돌아

不純세력 動態파악

◇犯人들이 누빈 現場

火傷…말못하는 女大生에 혐의도

현상금 3천만원…史上최고額數

"소금은 「침묵의 殺人者」"

美FDA서 過多섭취 警告

고혈압·신장병등 誘發

成人 하루 適量 2百mg

김치 1접시 6천mg… 한국인 注意해야

【로스앤젤레스=聯】 미국의학협회(AMA)와 美식품의약국(FDA)은 식생활의 필수 조미료인 소금을 「침묵의살인자」로 규정, 소금 섭취를 억제하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있다.

최근 발표된 FDA의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소금섭취 적정량은 2백mg인데 미국인의 1인당 하루평균 소금섭취량은 적정량의 20배가 넘는 4천mg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과다 염분섭취가 고혈압·동맥경화증·뇌출혈·심장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특히 한국인이 즐겨먹는 김치한접시에는 4천5백~6천mg의 염분이 함유돼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인들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헤이즈FDA국장은 「미국 성인가운데 약3천5백만명이 심한 고혈압증세로 고통을 받고있으며 약6천만명이 가벼운 고혈압증세를 갖고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고혈압환자의 대부분이 염분과잉섭취자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FDA는 소금섭취억제 시책으로 ▲시판되고있는 식품에 반드시 염분함유량을 명시하고 ▲요식업소에서는 음식의 소금첨가량을 줄이며 ▲가공식품의 염분농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은 소금대용품과 무염분가공식품생산을 적극장려한다는등 4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콜럼비아號 귀환 관람객 콜럼비아號의 귀환을 지켜보기위해 몰려든 수많은 美國人들이 타고온 자동차들이 뉴·멕시코州의 52번국도를 따라 3km 가넘는 긴행렬을이루고있다. 【홀라로사(뉴멕시코州)29日 AP=聯】

콜럼비아號 오늘歸還

24시간 연기끝에

【휴스턴29日AP·UPI=聯】 美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지구귀환이 착륙예정지인 뉴멕시코州 화이트샌즈공군기지 활주로 주변의악천후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늦은 31일 새벽 4시27분(한국시간)께 귀환한다.

휴스턴우주센터의 지상관제소는 화이트샌즈미사일 활주로가 인근사막에서 일어난 돌풍으로 인해 모래로 뒤덮여 있다는 보고를 받은후 콜럼비아호의 우주인들에게 지구귀환을 24시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MX미사일 生産·配置

美上院 軍事委서 거부

【워싱턴29日聯=聯】 미상원군사위원회는 30일 레이건대통령의 말썽많은 MX미사일 생산및 배치계획을 거부했다고 의회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상원군사위가 이날 비밀투표에서 강력하고도 정확한 MX미사일 40基를 생산, 미니트맨 미사일 사일로에 잠정배치하려는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右翼聯政발족 선언

엘살바도르總選 제2野黨당수 5개黨합쳐

【산살바도르30日AP=聯】 28일 제헌의회총선에서 공동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엘살바도르의 5개우익야당은 29일 연립세력을 구성, 새로운 국가화해정부를 발족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현집권 기민당에 이어 제2당이 된 극우 공화국민동맹(ARENA)당수 로베르토·도뷔송 현역소령은 이날 ARENA등 5개우익야당들의 연합세력구성을 발표했다.

한국 1億弗차관 世銀서

海外토픽

지나친 日光浴조심

스트레스 發癌원인

메아리

아직은 꽃소식이 잠잠한 잡목숲새에서 산수유만 활짝 피어 그 언저리가 환하더니 어느덧 진달래도 방싯피어나기 시작하고 양지바른데서는 백목련마저 만개가 임박한 상태다.

이제 곧 3월을 보내고 4월을 맞으려는 절계의 어간이어서 바야흐로 꽃천이 열리고 뒤미처 신록의 선연한 푸르름의 교향곡이 산하에 가득하려 하는데도 오랜 봄가뭄때문에 그간 대지는 포송포송 메마르기만 했었다.

한데 30일 새벽부터 긴 봄가뭄의 메마름을 적시며 봄비는 촉촉히 내렸다.

봄비의 造化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남·북한통일제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근래에 남한과 북한정권이 구체적인 통일제안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국토통일의 염원에 대한 집권자들의 반응이라고 보아 우리는 이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바이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한 정권과 국민들 그리고 해외교포들에게 다음의 몇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

1. 통일은 남북한 양 독재자와 집권층의 이해관계에 따를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룩돼야 한다. 남북한국민은 자유언론을 쟁취하고 각기 자기정부에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2. 일부해외교포들이 친남 친북으로 갈려 덮어놓고 한쪽 통일안에 기계적으로 찬동하는 유치한 습성을 고쳐야 한다.

3. 남북한정권은 각각 자기들의 안이 일괄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수락돼야 한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결국 통일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실제로는 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양측이 제시한 통일안에는 상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그러기에 실천이 가능한 공통사항들은 즉각 실시하면서 피차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1982년 3월 15일

토론토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
회장 박 찬 웅

現代 1兆3백억 首位

建設공사 都給한도액 확정발표

2위 大林·3위 東亞건설

百억이상74社…大型化추세

국내서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단일공사를 도급받을수 있는 업체가 생겼다.

30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 82년도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순위에 의하면 現代건설은 사상 처음으로 도급한도액이 1조원을 돌파, 1조3백27억원으로 올해에도 계속 수위를 지켰으며 2위는 大林, 3위에 東亞건설로 지난해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大林, 東亞의 82년 도급한도액은 각각 5천7백2억4천5백만원과 4천8백33억이다.

5, 6, 7위까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漢陽, 大宇, 三煥이 차지했으며 8위는 三湖, 9위는 京南기업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4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허를 처음 따낸 韓國重工業 지난80년 토목건축공사 면격차를 보였다.

2천3백만원으로 1위인 現代와는 액수에서 배가까운

기업이 각각 차지, 지난해의 9위및 12위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8위였던 美隆건설은 10위권에 머무는데 그쳤다.

16위로 지난해 10위의 漢拏건설은 도급한도액기 1백억원이

◇82년도 建設공사 都給限度額順位

82順位	商號	82年度 都給限度額	順位 80	順位 81
1	現代建設	1,032,704	1	1
2	大林産業	570,245	2	3
3	東亞建設産業	483,323	3	2
4	韓國重工業	387,066		4
5	漢陽	328,332	4	5
6	大宇	289,466	5	6
7	三煥企業	211,842	7	7
8	三湖	210,913	9	9
9	京南企業	172,337	12	12
10	美隆建設	172,184	6	8
11	韓逸開發	170,416	11	10
12	共榮建業	168,369	23	18
13	進興企業	162,322	14	17
14	南光土建	155,013	15	16
15	韓信工營	153,815	18	15
16	漢拏建設	142,714	11	10
17	三星綜合建設	141,205	19	19
18	極東建設	140,414	8	13
19	三扶土建	133,071	13	14
20	國際綜合建設	120,411	28	21
21	有元建設	100,898	31	26
22	東山土建	100,108	20	24
23	라이프住宅開發	86,312	17	22
24	럭키開發	84,472	25	23
25	三益住宅	83,392	16	20
26	韓國建業	81,622	24	25
27	正友開發	79,806	21	28
28	太平洋建設	79,274	34	32
29	豊林産業	66,926	40	30
30	雙龍綜合建設	65,635	57	36
31	코오롱綜合建設	65,150	33	31
32	大韓電線	62,581	26	49
33	新[illegible]	60,741	30	29
34	三益建設	55,333	38	33
35	롯데建設	54,319	22	27
36	高麗開發	53,071	27	34
37	錦湖建設	40,775	35	38
38	佑昌建設	39,822	48	40
39	珍德産業	38,354	62	44
40	東國建設	35,098	56	35
41	金剛	33,792	32	37
42	大農建設	32,930	44	39
43	大德綜合建設	32,490	49	42
44	大韓造船公社	30,645	68	55
45	鮮京綜合建設	30,510	41	50
46	韓寶綜合建設	30,200	45	59
47	林光土建	28,901	50	47
48	新東亞建設	28,441	64	56
49	宇成建設	27,899	43	45
50	韓一産業	23,373	76	54

(土木建築工事業) (單位:1백만원)

대학생海外研修 개선

民正、관계기관서 民泊알선키로

民正黨은 동일 지금까지실 시행은 대학생海外研修제도 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점을 들어 정부측과 협의를통해실 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날 당정간의의가 끝난뒤 李升允대변인은 『그동안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는 관광여행의 성격을 벗어나지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낭비한 사 전이 생긴것도 사실이라면서 「대학생 해외연수를 여행사 에 맡길것이 아니라 관계기 관에서 외국인가정에 숙박토 록 알선하는등 전면적 개선 될수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키 로했다」고 설명했다.

南北韓 高位級회담 北傀, 拒否의사밝혀

【서울=聯】 北傀 …

5人가족 최소生計費

서울 28만4천원 釜山 24만7천원

전국평균 24萬3천원

美 百13萬2千원 한국의 4·7배

다섯식구가 적자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월수입은 어느정도나 될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朴武益)가 조사한 자료에의하면 적자를 면할정도로 살아가는데 드는 최소한의 가계비는 24만3천원.

전국 평균치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이 가장높아 28만4천원이고 부산은 24만7천원, 대도시평균은 27만6천원이다. 지방도시와 농촌은 다소 낮아 중소도시가 24만9천원, 읍지역이 19만4천원, 면지역에 으로 나타났다.

19만]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美國과 비교해보면 4·7배의 격차가 난다. 미국 갤럽·풍의 조사결과 식생활비 의시 지역별로 차이가 나 서울은 9만9천원, 부산은 9만2천원, 대도시 평균은 9만8천원이고 중소도시는 9만6천원, 읍지역은 9만2천원 … 국평균치다.

식생활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 갤럽 조사결과는 9만2천원이 한달 식생활비의 전

農家문화용품 增加추세鈍化

TV·냉장고·세탁기·카메라등 문화시설을 갖춘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농경기와 흉작등으로 인한 자금사정악화에 따라 지난해 농가문화용품의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수산부가 지난 연말현재 전국 2백25개지구3천3백7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가문화용품 보유현황에 따르면 흑백TV는 1백가구중 91.4가구가 갖고있어 거의 보급이 완료됐고 컬러TV는 50가구에 1대꼴로 갖고있다.

실태를 보면 ▲녹음기가 80년 1백가구당 36.4가구에서 41.4가구로 ▲세탁기가 1.3가구로 ▲피아노(풍금 포함)가 0.38가구로 …

美레코드界권위 골든릴賞 수상작

趙容弼의 「미워미워」

地球레코드사에서 제작한 趙容弼군의 「미워미워」가 美레코드계의 권위있는 제작상인 골든·릴賞 수상작으로 선정된데이어 文珠蘭양이 제11회 東京국제가요제에서 최우수가창상을 받았다.

3人이 공동수상 내달 서울서시상

한국레코드 제작자및 가수에게 수여하는 레코드제작상 앰팩스사는 27일 地球레코드 사에 보내온 소식에서 「미워…」를 부른 가수趙容弼과 제작사대표 林政秀씨, 녹음부장 李泰京씨등 3인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워…」의 골든·릴상수상은 日本의 핑크·레이디, 이즈끼·히로시에 이어 동양에서는 3번째가 된다.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가수들로는 롤링·스톤즈, 이글즈, 바브러·스트라이샌드, 아바, 도너·서머, 닐·다이어먼드등 세계 인기가수 그룹들이었다.

수상곡은 美國내는 물론 전세계에 소개되는것이 통례. 이에따라 地球측은 4월중순께 日本CBS소니에서 「미워…」를 영어와일어로 출반할 계획에있다.

◇趙容弼

알뜰 해외여행 ⑦

—初行者를 위한 가이드—

안정高度 유지때까지 禁煙

벨트사용법 事前에 익혀두고 복장은 간편하게

빨간글씨 表記된곳은 손대면 안돼

그러나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내서비스받는 요령이나 에티켓을 대충 알아두면 다소 안심이 될 것이다.

승객의 생명을 맡은 기장이지만, 승객의 유쾌한 여행은 스튜어디스에 달렸다.

따라서 모르는 것은 서슴없이 묻고 승무원들의 지시는 고분고분 따라야 한다. 승무원들의 지시래야 딱 2가지. 「안전벨트를 매세요」 「담배불을 끄세요」 주로 이·착륙때 이런 기내방송이 나오는데 절대 따라야 한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도사리게 마련이다.

특히 초행자로 혼자 여행할 경우 상당한 긴장감을 맛보아야 한다. 식사는 어떻게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긴시간동안 멀미는 하지않을까? 외국어를 몰라 망신당하지 않을까 등등.

라야 한다. KAL을 탔을때는 우리말이 안내방송으로나와 괜찮으나 외국비행기를 탔을때는 옆손님이 하는것을 슬쩍 슬쩍 따라하면 된다.

보딩패스에 기재된 좌석번호를 찾아 자리에 앉으면 곧 안전벨트(SEAT BELT)를 매야하는데 면출을 모르면 지나는 승무원에게 물어보고 몇번 반복해 손에 익히는게좋다.

또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고도를 유지할때까지 담배를피우면 안된다. 만약의 경우 폭발의 불씨가 될수있다는등의 이유때문이다. 이동안은 긴급한일이 아니고는 승무원도 부르지 않는게 좋다. 특히 이륙때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 이때 승객들에게 권할수 있는 일은 좌석앞에 꽂혀 있는 기내 안내책자를 훑어보는것. 기내 약도·화장실위치·비상구위치및 사용법등이 상세히 적혀있고 여행국의 출입국수속절차까지 소개돼 있다.

기체가 안정고도를잡으면 승무원들이 활발히 서비스준비를 하고 승객도 화장실에 다녀올수가 있다. 이때부터 좌석에앉아있는 승객들은 벨트를 느슨하게 매는게 좋다.

맑은 날씨에도 비행기가 에어포킷에 걸리면 무섭게 요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터뷸런스현상은 수분간 계속되는데 이때는 좌석을 지키고 벨트를 죄어야한다. 실제외국항공에서는 화장실에 가던 승객이 천장에 부딪쳐 죽은 예도 있다.

안정고도에 오르면 담배를피워도 되는데 담배는 꼭 찌연구역에서 피워야 한다. 금연석에 앉을 경우는 자리를 찌연구역으로 옮겨 피워야 한다.

화장실사용법도 처음타는 승객에겐 중요하다. 기내에는 30~40석에 1개꼴로 화장실이있다. 일단 승무원에게 위치를물어보고 들어간후 안에서 문을 잠가야 된다. 문을 잠가야 화장실내의 조명이 밝아짐과 동시에 밖에 「사용중」이란 사인이 나가기 때문이다. 사용후에는 반드시 水洗버튼을 누르고 변기에 뚜껑이 붙었을때 화장실내에 비치된 휴지로 깨끗이 닦아야한다.

◇機內 에티켓을 알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수있다. 비행기여행을 많이한 歐美人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는것은 그들이 스튜어디스를 리드하는 세련미가 있기때문인점도 있다는점을 알아두자.

機內 에티켓알면 좋은 서비스받는다

또 기내화장실은 남녀용구별이 없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화장실에서는 절대 담배를피워서는 안된다. 비행기화재의 90%이상이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국제선에는 일단 기내식 서비스가 있다. 장거리인 경우는 3~4끼를 먹어야 할때도 있다. 식사때는 앞좌석의 등받이에 붙은 테이블을 펴고 기내식을 얹어놓고 먹는다. 이 테이블은 책을 놓고 읽거나 엽서나 간단한 편지같은것을 쓸때도 편리하다.

기내식은 간단한 양식종류지만 처음대하면 당황하게된다. 냅킨속에있는 포크·스푼·나이프를 꺼내고 그 냅킨을 무릎위에 깔고 옆사람이 먹는방법을 참고삼아 편리한대로 들면된다.

기내식과 함께 음료도 나온다. 코피·홍차·주스류가 있고 와인·위스키도 마실수 있다.

그러나 기내에서의 과음은 금물이다. 순항고도 (약 1만m)에서의 기내기압은 漢拏山정상에서와 같다. 梶元浩박사(KAL항공보건연구소장)는 『기내에서 술을 마시면 지상에서보다 빨리 취하고 혈압도 더 많이 오른다』고 경고한다.

기내 오락시설로는 영화와 음악이 있다. 승객들이 탑승하

乳兒用 기저귀·우유·장난감등은 스튜어디스에 부탁하면 제공

비행기 여행의 최상책은 잠깐 잔 자는 사람이면 주는 것이고 잠자는게 최고다.

좌석이 뒤로 알맞게 젖혀져 잠자기에 편하다. 바로 머리위의 (OVERHEAD BIN)에서 베개를 꺼내고 승무원에게 요를 부탁해 덮고 자도좋다.

기내에서의 복장은 간편한게 좋다.

특히 여자는 기내에서 막입을수 있는 옷을 준비했다가 비행기가 고도를 잡은후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된다.

기내에는 유아를 위한 준비물도 모두 갖춰져 있다. 기저귀·우유·장난감·요람등. 스튜어디스에게 말만하면 다 나온다.

기내에서 또 한가지 안전을 위해 준수할 사항은 비상출입구, 비상핸들등을 만지지 말일이다. 승객이 손대서는 안되는 것은 모두 빨간 글씨로 표기돼 있다.

승무원에게 몇잔이 승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비스는 1백%받는게 비행기여행의 요령이다. 승무원들은 호칭에대해 민감하다. KAL의경우 신참승무원들도 「아가씨」라고하면 거부반응을 보인다. 가장 좋은 호칭은 지나칠때 이름을 기억했다가 「미스킴」식으로 부르는게 무난하다.

끝으로 비행기여행을 할때는 국제사회에 들어섰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기내에서의 무례한 행동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어글리·코리안」의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긴다.

간단한 인사법은 익혀야 한다.

바깥자리에 외국인이 앉았는데 나가고 싶으면 일어 서며 『익스큐즈 미』(Excuse me)라고 말한다. 또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나오면 무뚝뚝하게 비켜줄게 아니라 『유어 웰컴』(You're welcome)이라고 응답을 해주는 게 예의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⑳

下宿옮긴후 有名극작가만나 큰影響

인생행로의 갈림길에서 나는 큰과오를 범했다. 나의 청춘을 좌우할수있었던 오직 한번밖에없는 기회를 영영 놓치고말았다.

히로시마(廣島)로 향해 달리는 열차속에서 일본형사가 생각에잠긴 나를 깨웠다. 형사가 한국학생들을 심문하는것은 이시대의 풍습같은 일이라 그리 놀랄일은 아니다.

연락선이 하관항구에 닿아서 선객들이 배에서 내릴때나 동해도선 기차가 하관역을 떠날때나 으레 두사람의 일본형사가 한국사람들을 개별적 심문하는 것이 예사였다. 일본형사의 고등계 형사들의 노련한 경험은 백발백중 그 많은승객중에서 한국사람만을 골라낸다.

성명,주소,여행목적,행선지,신분등을 꼬치꼬치 묻는다. 늘 기분나쁜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일본의 관문을 통과했다. 치욕적이고 불유쾌한시간이다. 어디를 무엇때문에 갔다오느냐, 왜 너희들은 이렇게 불손한 태도냐 등등 그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지난 방학때 당신들을 만나서

法律學科에 진급

얼굴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들을 범인이나 다루듯이 심문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약간의 모멸적인미소를 띠면서 엉뚱한 화제로 인격모욕의 소행을 덮어버리곤했다.

그들이 히로시마역부근에서 하차할 때까지 불유쾌한 시간이 지속됐다.

후쿠오까(福岡)에서의 내 자업자득(自業自得)이 열차속으로까지 불유쾌한 분위기를 몰고온셈이다.

차창을 치던 비도 어느새 그치고창밖에는세또나이까이의푸른물결이몰려왔다가 물러가곤 했다. 부모님들의 오오미야선생께 면목이 없는 일이었다.

1933년3월, 일본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1학년에 진급했다. 오다끼바시(小瀧橋)내하숙집 바로 옆에는 극작가 무라야마·도모요시(村山知義)씨가 살고있었다. 그는 당시 쓰끼지(築地)에서 일본의 신극운동에 활약했고 극작가로도 이름있는 사람이다. 후일 서울에도 왔고, 한국영화를위해 「春香傳」의 각본도 썼다. 내가 映畵의 길에 더욱 정진하게 된것도 생각해보면 무라야마씨의 격려가 큰 영향이 된것 같다.

오직 연극일로에 정진하는 그의 태도에 우선 경의를 표했고 밤늦도록 각본을 쓰는 그 정력에 느낀바가 컸다.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이

어느새 九州의 상처를 말끔히 가시게했다. 내친구 河石巖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시이·미도리(石井綠)등과 같이 신흥무용연구소를 上落合에 차려놓고 무용에 정진하던 벗인데 같은 하숙에서 기거하면서 늘 연극·무용, 영화이야기를 해 생활주변이 이 무드로 물들어갔다.

한달전에 구주제대에서 고배를 마시고 동경으로 올때 나는 기차속

◇일본大 예과를 수료하고 九州로 편입시험을 보러가던 때의 필자

때때로 學問과 藝術사이서고민

專攻에 罪責感…갈등 느끼기도

에서 남은 여행 생각해 있었다. 그때 나는 은근히 다음날에 앞일들이 어떻게 될것인가, 아니 본래의 나를 찾을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시 얼마 안가서 다시 후회도 하는 나를 찾았다. 뒷일이고 후회도 했으나 법률공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차차 내 희망의 단편들이 자꾸만 산이 부서져가는 것을 봤다. 더높은 꿈, 더 귀한 재력, 더 큰 희망, 그런것들이 영화로 인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 간 것일까. 영화는 내 관능속에서 성장해온 숙명인 것일까. 한때 갈피를 잡지못하던 내 자신을 스스로 질책도했다.

학부 1학년, 법률을 전공하는 내가 그 허황된 환상속에서 왜 괴로와해야 하는가. 우에노공원 벤치에 앉아 그렇게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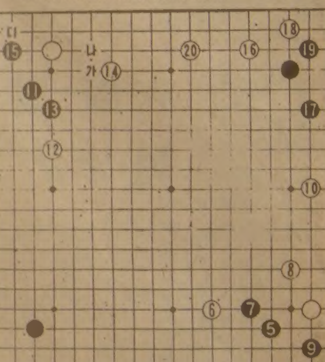
고바야시(小林)교수의 헌법, 스에다까(末高)교수의 민법강의를 들으면서 또(佐藤)교수의 경제학, 사또(佐藤)교수의 경제학을 생각해 보곤했다. 내 대학동창 韓雲錫는 도서관과 六法전서로 일과를 삼는 공부하는 벌레였다. 그가 지금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왜 그와 같은 법학에의 정열이 없었을까.

그것은 학문과 예술이 양립될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회의와 주저와 망설임으로 한동안 전공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제13기 名人戰

第16局 第2譜 5~20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3勝1敗)
黑(6段) 張秀英(3勝1敗)



예상했던대로 이 바둑은 초반부터 치지부진, 서로가 몸을 사리고 있는 느낌이다. 보라 白24까지에서 4분이 걸린 점만 추려보면 白6이 20분, 黑7은 10분, 黑13이 18분, 白14는 5분, 黑15가 15분, 白16이 각각 6분씩, 白18은 8분, 白20이 5분, 상오10시에 개시된 바둑이 여기까지 어느새 하오12시반에 가까왔다. 서로는 앞을 서두르는 투지를 시간으로 달래고있는것이다.

우하귀와 좌상귀가 같은 꼴이 되었는데 다만 白14가 우하귀白8과 다르다. 원래 14로 「가」의 곳에두면 견실하지만 「동형의재현」은 단조롭다고 보고 술책 피한것이다. 그리고 또 白14는 물론 우하귀 白8보다 발이 빠르다는데에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白14 目字의 뜻은…

黑15다음 白16이하 20을 구상한것으로서 경로서 뜻과 국가 같이 이 삼척집을 구축한것이다.

이다. 더우기 白14로 「가」면 멀리 우상귀 黑1한점이 편한 뜻도있다. 그렇지만 장차黑에게 「나」의곳을 친입당하는 수는 각오해야한다.

黑이 실상 白14에서 20까지의 형을 허락한 까닭도 黑「나」의 맛을 노릴 수있기 때문이다.

白이 黑「나」를 예방하려면 「다」에 붙여 학고도처럼 黑1에는 白2, 4로 보강하는것이 보통이다. 이경우 ◎표가 「A」에 있는 것보다 나은것은 물론이다. 【一凡】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82년의 봄을 사는 小市民의 自畵像…우리들의 生活日記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經濟部
崔相泰 次長
金曙雄 〃
金基炅 次長待遇
趙源永 〃
兪曦錫 記者
朴武 〃
朴炅銀 〃

◇外信部
林鍾乾 〃

◇寫眞部
李昌淳 記者
崔東完 〃
權周勳 〃

紙面안내

庶民의 24시 뛰고 또 뛴다 7·8·9面

산다는게 이렇지요

한국인의 生活 統計로 풀어보면

平均 교육 中2중퇴·月소득 24萬원

집은 12坪半…전화는 4집에 1臺꼴

여가善用 방법없어 TV시청·낮잠

4~5인가족 한달벌이가 24만1천원, 제집이건 세를 들었건 살고있는 집의 住居空間은 가구당 12·51평에 방2개 남짓, 전화는 네가구중 한집꼴, 냉장고는 세집에 한집꼴로 보유하고있고 교육수준은 중학교2학년中退정도。

이것이 바로 지난해연초 실시된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결과 밝혀진 80년중의 한국 家口전체 평균생활, 교육수준이었다。말하자면 오늘의 한국 庶民생활도 바로 이 평균 언저리수준에서 영위되는 셈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가구수는 7백97만1천세대에 이르고 이들중 한달수입이 9만원~35만원 사이가 65·8%인 5백24만5천가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한달수입이 全가구평균인 24만1천원을 채 밑도는 경우가 63·2%에 이르고 한달수입 5만원미만의 극빈층도 전체가구의 6·1%에 이른다。반면 한달1백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자도 사실은 전체가구의 1%에 불과하다。

가구당 가족수는 평균4·6명。核가족화추이에따라 75년조사때 나타난 평균가족 5명보다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 전체가구중 제집을 장만, 마이홈의 꿈을 이룬 가구는 58·2%。나머지 40%남짓가구가 여전히 셋집살이를 면치못하고 있다。특히 전체가구의 32·9%(2백62만4천가구)가 단칸방 신세이고 방2개만을 사용하는 가구수도 34·9%(2백78만3천가구)에 이르러 2개이하 방으로 생활하는 庶民가구가 67·8%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가족 4·6명이 가구당 평균 2·04개의 방에서 살아가고있고 따라서 한방을 2·13명의 가족이 함께 쓴다。

住居공간도 여유없이 빠듯하지만 주택부대시설이나 환경도 좋은편이 못된다。

주택의 29·4%가 아직 상수도보급이 안되고있는데다 立式부엌시설을 쓰고있는 가구는 불과 9·7%, 溫水목욕시설은 4·3%, 수세식화장실이 달린 가구는 12·3%에 지나지않는다。

전체가구의 87%가 在來式부엌시설이나 在來式화장실을 쓰고 있고 아예 부엌시설이 없는 가구도 전체의 3·3%, 화장실이 없는집도 1·8%나 된다。

밥짓는 연료는 62·7%의 가구가 연탄을 쓰고 난방용으로도 연탄을 쓰는집이 69·5%로 대부분이다。가스로 밥짓는 가구는 전국가구의 5%, 기름으로 난방하는 집은 2·5%에 불과하다。

표준적인 한국의 서민들은 한달벌이 24만원내외로 부부와 자녀2~3인가족이 방두칸딸린집에서 연탄을 때고 재래식부엌과 화장실을 사용하며 생활한다。

요즘 이웃주변을 살펴보면 고등교는 말할것도없이 대학안간 사람이 어디있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한국인 전체의 교육수준을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만6세이상의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교육을 받은 평균해수는 7·48년。중학교2학년 中退정도가 평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회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학교교육을 거의끝냈을 연령계층의 교육수준을 봐도 20代의 교육연수는 평균9·81년, 30代가 9·04년으로 나타나 중학교3년졸업이나 고등학교 1학년中退수준에 불과하다。

40代평균교육연수는 7·34년으로 중학 2년중퇴, 50代는 4·69년으로 국민학교5학년, 60代이상은 평균1·93년으로 국민학교 2학년수준으로 학교공부는 끝났다。

대학을 못갔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사실 없을것같다。

전체가구중 전화가 있는 집은 24·2%로 네가구에 한집꼴이고 냉장고를 갖춘집은 37·4%로 대략 세집에 한집꼴로 있는 셈이다。

75년 사회통계조사때 전화보유율이 9·6%, 냉장고는 6·5%였던것과 비교하면 문화시설보유를 비롯,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된 셈이다。

80년말현재 TV를 갖고 있는 가구 비율은 85%이고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는 38·9%로 나타났다。텔레비전은 대다수가구가 있는 셈이지만 신문을 보는 가구는 아직도 두집에 한집꼴밖에 안되는 셈이다。

여가는 어떻게 보내는가。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사람의 39·1%가 잠을 자거나 그냥 휴식을 한다는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그다음이 TV나극장구경을한다는것이 38·1%로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를 즐기는사람은 3·8%, 화투 바둑 장기등 승부놀이가 5·7%, 사회봉사활동은 0·8%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서민은 여가를 즐길 여유가 거의없어 집에서 낮잠을자거나 TV를보는것으로만족하고있다。

TV를 보는시간은 1주일에 평균 16시간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2시간 남짓이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TV보는시간이 길다。

회사출근사정은 어떤가。집에서 15분미만시간으로 출근하는사람이 취업자전체의 28·1%, 30분미만이 62·3%에 해당한다。반면 1시간이상걸리는 거리에서 출근하는 사람도 전체의 7·3%에이르고 1시간반이상거리를 매일 통근하는 사람도 1·7%나 된다。

서울의 경우 시민의 38·9%가 통근·통학을 하고있고 江南에서 江北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51만1천명, 江北에서 江南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7만9천명으로 매일 아침 러시아워에 漢江을 건너는 서울의 庶民인구는 69만명에 이른다。

주택난, 교통난에 비해 食생활은 많이 개선된 편이다。

농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80년중 우리나라 人口1인당 하루 먹는 쇠고기는 7·1g, 돼지고기는 17·3g으로 5년전에비해 50% 가량 늘었고 달걀은 한사람이 연간1백19개를 먹었다。

우리나라 庶民가계의 살림살이사정은 경제기획원이 최근 조사한 지난4·4분기중의 도시근로자 가계동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의 한달평균수입은 33만6천6백84원。전년같은때보다 벌이는 19·3%가 나아졌지만 그동안 물가가 올라버려 실질가치로는 2·8%정도밖에 수입이 늘지않았다。하기야 80년이래 봉급오른것보다는 인플레가 더높아 사실상 앉아서 減俸을 당해왔던 처지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워진셈。

이중 28만2천8백1원을 지출, 소비했고 나머지 5만3천8백83원을 저축했다。

지출明細를보면 세금, 공과금, 利子등으로 평균 1만2천2백79원을지출했다。실제 소비성지출은 나머지 27만5백2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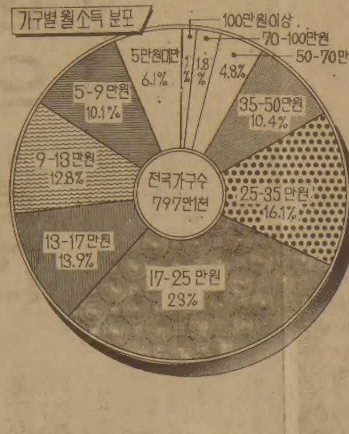
이중 38·4%인 10만3천8백11원이 식료품비로, 21·3%인 5만7천7백66원이 집세나 집수리등 住居費로, 양말 內衣등 의복류구입에 8·5%인 2만2천8백91원, 연탄 전기료등 光熱費로 7·8%인 2만1천1백60원, 교통비 약값등 잡비로 21%인 6만4천8백94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光熱費가계부담이 크게 높아졌고 잡비쓰임새도 많이 늘었다。

하기야 부동산경기침체탓으로 집세는 덜올라 住居費부담이 안정되어준게 그나마 도움이 된셈。

10만3천8백원의 식료품 지출중에는 쌀등 곡물을 뺀 반찬값등 副食費가 6만6천4백24원이 들었다。

물론 이같은 근로자가계통계는 어디까지나 평균수치이고 인플레로 실질급료는 減俸인데 쓰임새는 늘어만가 우리의 庶民가계 다수는 지난연말 赤字가 불가피했을 것이고 알뜰살림을 꾸려가는 주부의 고통도 더한층어려웠음이 분명하다。【金曙雄기자】



◇도시근로자家計

	1981년 4/4분기 금액(원)	구성비(%)	전년동기증감률(%)
소비지출	270,522	100	19·1
식료품비	103,811	38·4	17·5
주거비	57,766	21·3	12·4
광열비	21,160	7·8	28·1
피복비	22,891	8·5	13·2
잡비	64,894	24·0	27·9

◇연령별평균교육연수 (80년말현재)

	평균	남	여
평균	7·48년	8·58년	6·46년
19세이하	6·42〃	6·49〃	6·36〃
20—29세	9·81〃	10·26〃	9·38〃
30—39〃	9·04〃	10·11〃	7·94〃
40—49〃	7·34〃	8·93〃	5·78〃
50—59〃	4·69〃	6·39〃	3·23〃
60세이상	1·93〃	3·20〃	1·08〃

◇주택환경과 便益시설

주택규모		건평(평)	대지(평)	사용방수(개)
	가구당	12·51	41·96	2·2
	주택당	19·3	—	3·4
	1인당	2·87	9·64	—
부엌		입식	재래식	없음
	가구당	9·7%	87%	3·3%
	주택당	18·3〃	81·7〃	—
목욕		온수	비온수	없음
	가구당	4·3%	10·7%	85%
	주택당	10·5〃	12·0〃	77·5〃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없음
	가구당	12·3%	86·2%	1·5%
	주택당	18·2〃	80·0〃	1·8〃

◇初婚연령과평균가구

	평균가구원수(명)	초혼연령(세) 남	여
1975	5·0	27·4	23·6
1980	4·6	27·1	23·7

◇문화시설보유율

	신문	TV	전화	냉장고
1975	26·7%	30·2%	9·6%	6·5%
1980	38·9〃	85·0〃	24·2〃	37·4〃

조심조심 千里길 오늘은 겨우 6천원

택시運轉技士

기어이 걸렸구나…해질무렵 信號위반에

通禁해제후 술손님 合乘없어 매일헛탕

팁후한 女子손님만나면 고맙고도 씁쓸

오늘은 유달리 피로감이 온다。가스를 충전하고 계산을 끝낸뒤 차고를 나온 시간이 새벽 0시 50분。다른날에 비해 1시간정도 이르기는 하지만 일당으로 주머니에 남은 돈은 6천6백원뿐이다。

교통질서집중단속이 실시된이후 그동안 살얼음 디디듯 조심했으나 오늘 기어이 걸리고 말았다。하루 해를 거의다 보낸 하오6시30분께였다。

淸凉里에서 40대남자손님1명을 태우고 청계천 2街로가기 위해 崇仁洞로터리를 지날무렵, 1톤트럭뒤를 무모하게 따른 것이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교통순경은 『20일간 영업정지니다』라고 「20일」을 강조하듯 정중하게 말했다。『제기랄』소리와함께 빠져나갈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럴때는 14년 운전경력도 별무 소용이다。너무 똑 떨어지게 걸린것이다。교통순경유니폼의 왼쪽 칼러 배지가 한가닥 희망을 주었다。전경대출신이아닌 정규교통순경임을 그 배지가 설명하고있기때문이다。그만큼 「쇼부」치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전경대출신교통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소문나있고 사실 또 그렇다。

손님이 거래장면을 못보도록 뒤 트렁크를 여는체하면서 1만원을 건네줬다。집중단속이전에는 신호위반이면 5천원이었는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쇼부값」이 모두2배로 뛰었다。딱지를 떼면 20일간 영업정지에 범칙금 3만원, 거기에다 꼬박 하루 낮을 교양을 받아야하니 돈으로 때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딱지를 떼고나면 기분나빠 나머지 연거푸 사고를 내기가쉽다。3·1로 빌딩뒷길에서 10여분간 휴식을 취했다。배가 고팠다。『뚝배기식당』의 1천4백원짜리 닭복음점심이 쉽게도 꺼진다。값은 두달전부터 2백원이 올랐으면서도 양은 줄었기때문이다。

요즈음은 주정차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을 조심하다보면 하루 4백30㎞를 달리기가 어렵다。그것도 손님이 없으니까 많이 달리니 그정도다。전에는 5백~5백30㎞를 달렸는데…하루 일당으로 1만5천원 집에 가져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오늘은 한건걸려서 1만원, 입금 3만원, 가스대 2만2천원(46ℓ), 차고비 7백원, 점심·저녁 2식 2천8백원, 담배1갑 5백원, 세차비 5백원을 제하고 나니 주머니에는 6천6백원밖에 남은것이 없었다。

이미 깊이잠든 주인집 눈치를보며 문을 따주는 진호(장남) 엄마보기가 민망스럽다。내일은 짝수날 (비번일)이니 늦잠이나 실컷 자 두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 ×

차에 오른 승객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요즘 벌이가 어떠냐』고 묻는다。신통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는 이같은 질문끝에 으레 고개를 끄떡이거나 맞장구를 친다。『우리장사가 이지경인데』하면서。장사는 죽을쑤는데 세금만 터없이 높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장사하는사람들은 한상 엄살을 피우게 마련이라지만 당장 내가 수입이 떨어지니까 수긍하지 않을수도 없다。유식한 말로 『택시경기가 일반경기의 가장 예민한 指標』라고 하지않는가。어떨든 승객들은 인이름 외듯 온통 경기얘기뿐이다。

밤이 들어서는 밤10시반이후 술손님을 태우기가 하늘의 별따기다。차도 한복판에까지 나와 손가락을 펴보이면서 흥정을 벌이던 武橋洞의 술꾼들은 도대체 어디로 모두 사라져 버렸는지。漢南洞살롱街나 永東유흥가는 그렇지만도 않은것 같은데 그전에 인기높은 밤11시이후 손님이 통금해제이후 눈에띄게 드물어졌다。그대신 저녁 러시아워의 피크가 저녁 7시30분~8시대로 크게 다가왔다。일찍 적당히 마시고 귀가하려는 속셈이 일반화되는 것일게다。그들조차도 급하지 않으니까 3백50원짜리 좌석버스로만 몰린다。통금이 없어 졌으니 택시운전사에게 아쉬운소리를 할필요도 없다。

밤술손님처럼 택시운전사의 하루벌이에 크게 보탬이됐던 출근시간의 합승손님마저 요즈음은 좌석버스로만 몰려 일당 채우기가 버찰정도다。그렇다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고급주택가로 일부러 차를 돌리기에는 거리때문에 기름값이 너무많이든다。선탑승객과 방향이 비슷한 손님을 태우는중 合乘탑승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합승비 1천원을 아끼려는 절약정신이겠지만 이래저래 운전사들만 죽을 지경이다。

불경기라지만 여자손님의 팁은 대부분 남자수준을 크게 능가해서 운전사들을 놀라게한다。오늘하오 3시께 서대문로터리에서 말죽거리까지 간 40대의 부유스러운 여인은 요금 3천1백원의 2배가 넘는 7천원을 던지듯 이주고 뒤도 안돌아보고 간다。차안에 가득 남기고 간 향수냄새속에서 미처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채 멍하니있다가 갑작스럽게 늘상 귀에익은 보안교관의 얘기가 떠올랐다。『물정에어두운 팁을주는 사람은 일단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지만 고마운 생각이 여운을 끌고 따라다녀 하오 내내 가벼운 기분이었다。어떨든 40대이후 중년여인들의 씀씀이는 항상 우리같은 남자들을 우스운 위치로 떨어뜨리곤 한다。

× ×

비번날인 어제 하오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않아 몇번이나 교통순경의 「밥」이 될뻔했다。

아침겸 점심을 느지막하게 먹고 다시 잠이 들려는데 담너머 (우리방은 바로 담밑 문간방이다) 빈터에서 집사람 (진호엄마)과 주인집여자(35~36세가량) 사이에 다소 떠들썩한 언쟁소리가 들렸다。

J국민교 정규축구선수 (라이트·인너를 본다고 평소 자랑이 대단했다) 인 진호가 학교에서 돌아온뒤 주인집 아들 준원 (J국교2년)이의 축구볼을 빼앗아 놀면서 쉽게 돌려주지않자 울면서 호소한 얘기를 들은 집주인여자가 진호를 크게 나무라고 『준원이를 괴롭히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보증금50만원에 월4만원의 사글세로 4년전에 계약했지만 문간방을 세들었는데 새주인 張씨(이름은 잊었고 모학원의 강사라고만 들었다)는 약1년전에 이 집을 사왔다。

애들 싸움이 여자싸움되고 남자싸움으로 번진다지만 저녁늦게 들어온 집주인 張씨가 집주인여자의 경위설명을 듣고 오히려 자기부인을 나무라는 소리를우리부부는어렵풋이들었다。

L주택에서 모집하는 중동취업운전사모집이 있어 덤프트럭운전사로 신청을 냈는데 실기나 면접시험 보라는 통지가 없다。하기야 요즘 중동취업(중장비 운전사)은 대형면허, 그것도 2년이상 경험자만 추린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0만원이상의 경비가든다고 하니 맥없이 기다리는놈이 숙맥이지。

지난해 8월에도 D건설의 중동취업자모집때 崔씨 (전 이발소 경영)에 속아 수속비용에 쓴다고해서 꾸어서 마련해준 30만원만 날리고 아직도 매달 1만5천원 (5분) 씩 이자를물어주고 있지만 중동취업의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다。

한 3년간만 중동에서 눈딱감고 고생하면 아버지가 막내동생과 함께 과수원으로 빌어쓰고있는 고향의 面有地3천평을 불하받을수 있도록 만원은 저축할수 있을텐데。

내일은 진호가 새학기들어부터 사달라고 조르던 가죽축구공을 사주어야겠다。【李基鎬·36·서울城北區長位2洞 택시운전사】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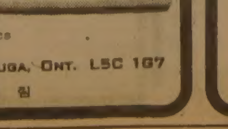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렵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 전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영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小市民의 自畵像 우리들의 生活日記

한국일보 (특집판)

좋아 택한 길이지만 家計는 매달 赤字니…

교사

많은 선배교사들을 생각해 본다。그들은 그저 산이좋아 산을 오르는 심정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가르침이야말로 산 생명체를 변화시키는 창조적 작업으로 여기고 지금 이 시각에도 노구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로 젊은 영혼을 일깨운다。가르침에는 本이 있어야 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늘 강조한다。그래서 언행과 거동을 삼가며 묵묵히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에 머리를 숙이곤 한다。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변할수 없는 것이 가르침의 길임을 그들은 보여준다。

나는 왜 교단에 섰을까。부와귀를 얻기위해 교사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는가하고자문해본다。安과樂을 찾아서 이길을 들어선 것은 아니었을까。

산사람들은 그저 산이 좋아 산을 오른다고한다。나역시 가르침이 좋아 교사의 길을 택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수업준비에 정성을 쏟았던 것도 그길을 성실하게 가자는 의지때문이었다。혹시나 오만과 가식을 지니고 교단을 서온것은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아진다。

아침6시면 온집안이 부산하게 돌아간다。국민학교에 다니는 두아들은 책가방을챙기느라 야단들이다。나와같은 길을걷고있는 아내는 아침준비로 손길이 바쁘다。그새 나는 화단을 손보고 간단한 건강체조를 한다。

네식구가 등교길에 나서는 것은 상오7시。제자들의 아침인사를 받으면서 8시정각이면 교무실에 들어선다。창가에모여 동료교사들과 나눈 이야기는 담임수당이 최근1백67%나 인상됐는데 뜻밖에도 주위사람들이 이문제에대해 아무도 떠들어주지않는다는 것이었다。교무실에서 펼쳐든 조간신문에는 학교내에서의 학생폭력、살인등의 기사가 눈에 띈다。

반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생활을하다보면 시간가는줄을 모른다。『훈』이 녀석이 한마디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교실에 휴지를 함부로버리지말고 출입문을 조용히 여닫자』고 아침조회때 말한적이 있는데 훈이는『왜 우리를 여학생다루듯 하느냐』고 항변투의 태도를 보였다。

훈이는 하루의일과를 시작하는 말치고 자질구레하다고 느꼈을까、남자다운 대범함을 보이려고 그랬을까、헤아릴수 없다。자율화의 여파가 아니기를 바랄뿐이다。대범함과 함께 작은일에도 성실할수있는안목이 훈이에게 생기길바라고 또 타일러주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식』이는 수업방식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왜 우리들 수준을무시하고 지리한수업을 전개하느냐』고 질문한다。목이 따갑도록 두세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요점을 정리한 수업방식을 불만스러워 한것이다。

그녀석은 우수한 편이어서 한번의 설명으로도 이해가되겠지만 절반이상은 세번설명해도 부족한 실정이다。식이의 허물없는질문이 마음에들지만 수준차를무시한 현실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생활로 되어가는 모습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면담을 기피한『철』이를 불렀다。철이의 소신은 분명했다。『선생님들은 자기생각만 강요하시고 우리들 주장은 받아주지 않으려든다』는 것이다。숨통이 막히는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근차근 얘기의 실마리를 풀어 철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한참동안 진땀을 뺐다。스승과 제자사이에까지 대화가 단절돼서는 안되겠다는생각이 든다。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성실하게 지도하고 돕는데 열과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잡무를 대충 정리하고나면 하오5시—。

집에 돌아와서는 화단을 손질하고 다음날의 수업준비를 한다。文學思想등 문학관계 잡지를 읽기도한다。틈나는 대로 국민학교3학년과 1학년에 다니는 두아들의 학교공부를 도와주기도한다。

다람쥐쳇바퀴 돌듯한 생활속에 어느새 한달이 훌쩍 지나가곤한다。

봉급날이 다가왔다。稅金등을 떼고 나서 40만원을 손에 쥔다。본봉과 수당을합한 금액이다。10년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교사가받는 월급봉투가 다소 얇다는생각이다。그렇다고 부수입이 있는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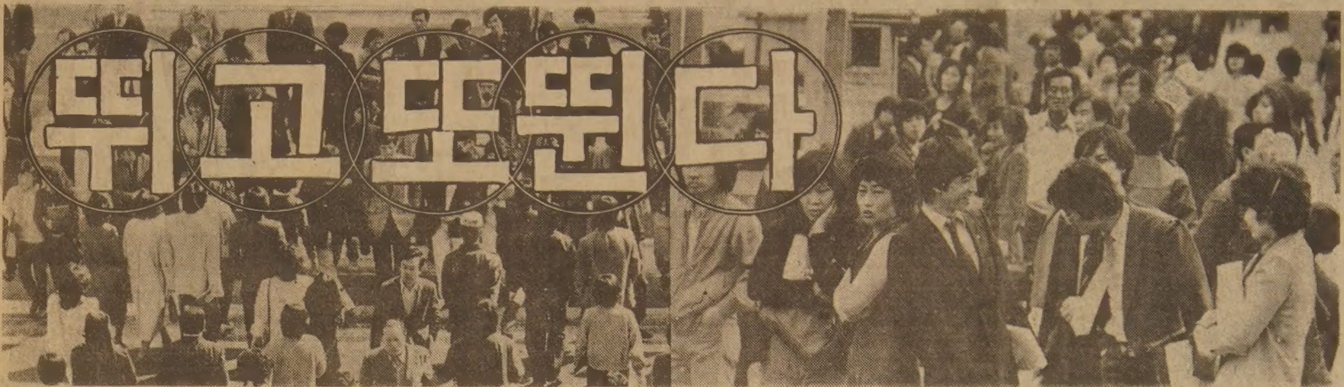
그래도 내 경우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부부교사로 맞벌이를 하고있기때문이다。상당수의 선배나 동료교사들은 아직껏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음을볼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한다。

비록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생활여유는없다。건평50평2층양옥의 현재 살고있는집을 무리를해서 샀기때문이다。2층을 전세 준데다 1천만원을 은행융자를 받아샀기때문에 아내의 월급36만원은 몽땅 은행으로 들어간다。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내가 받는월급40만원으로 4식구의 한달생활을꾸려나가야한다。

아내는 어찌된셈인지 매달 가계부가 적자라고 걱정이다。어떤달에는 10만원이넘는 적자가 기록된다는 것이다。주부식비로 26만원、전화료·전기료·수도료·오물수거료·연탄값등이 10만원、신문잡지구독료1만원、교육비 3만원、의료비및 의류구입비2~3만원、용돈·담배값·교통비등 가계비를 항목항목 열거하다보면 금새 40만원이 다찬다。알게 모르게 술짓술짓 나가는 것이나 손님접대비등은 모두 적자로 처리될수밖에 없는 것이다。보너스를 연간6백%받아 적자를 메우고 그런후 남는 금액을 저축할수 있게된다。전공분야의 서적을 충분하게 사볼수 없는 빠듯한 생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한번도 전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다。가르침의 변화는 수치화 점수화할수 없는 것이다。양심을 값있게 여기며 제자의 인격변화와 성장을제일의 낙으로 삼는것이 나의 생활 신조이자 보람이다。

【邢南圭·서울師大附高교사】



이젠 TV·전축도 갖춰 그런대로…

부러움도 더러 받지만

銀行員

꼬마들 유치원 보낼 일이 걱정이다。한달에 3만원—。다달이 새로 돈들어갈 구멍이 생겼으니 골치거리가아닐수없다。이달중에 월급이 오른다지만 은행원봉급이 올라봐야 얼마나 더오르겠나。들리는소문으로는 올해는 10%도 어려울것같다는 얘기다。10%가 오른다해도 지금 나있는 가계부 구멍을 때우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살림을 줄여볼여지가 있는것도 아니다。안그래도 빠듯하게 꾸려가는살림이다。다달이 2~3만원씩 모자라는것을 보너스 받을때 몰아서 채워주지않으면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적자가계다。

소견머리 없는 마누라가편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게 아닌지 모르겠다。여섯살짜리밑에 녀석은 내년에 보내도 되는 것을 굳이 함께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한녀석만 보내면 1만5천원이면 된다。둘이 나란히다니면 저희들도 좋고 엄마로서도 보기좋고 마음든든한 일이겠지만 돈 들어가는것도 좀 생각해봤어야 한 일이다。유치원비만 내면 끝날 일이아니다。

옷이며 모자며 가방에다교재대다 소풍비다해서 알게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많다。한꺼번에 두녀석 몫을 감당해내자면 적잖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지고 보면 마누라를 나무랄 것도 없다。그정도 욕심도 안부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나。나이가 벌써 서른다섯살。은행원 생활 12년에 대리경력이 4년이다。

어느모로 보나 돈 3만원 들여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일을 갖고 걱정할 처지는 되지 말아야 할게 아닌가。나이로 봐도 그렇고 경력으로 봐도 그렇다。지금쯤은 안정도 되고 생활에 여유도 다소간 생겨야 할 때다。

남들은 은행대리라고 더러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돌이켜 보면 빛좋은 개살구라는 생각 밖에 들지않는다。

월급으로 한달에 받는 돈이 42만9천4백원—。본봉과 직책수당、금융수당을 합한 금액이다。여기서 갑근세 7천62원과 방위세7백6원、주민세 5백29원、보험료 6천원、친목회비 3천4백60원、재형기금 3천원、신협출자금 2백원、재형기금 3천원등 필수공제와 신협특별출자금 8천5백90원、재형저축 2만원、신협대출상환금 2만5천5백15원등 임의공제를 합해 총 7만3천3백32원을 떼고나면 손에 쥐는 돈이 35만6천68원—。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 3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에 쥐는 35만6천68원중에서도 친목회비 3천4백60원을 고정적으로 떼야하고 그때 그때 생기는 경조비를 또 떼야하니까 어떤때는 33만원 수준도 못되는 수가 있다。내자신 근로자의 한 사람이니까 내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 정도의 수준이라는데 대해 별다른 유감을 가질수는 없다。그러나 은행원생활 12년에 경력4년의 책임자급 대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심할 정도로 적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놀랄만큼 잘 사는 동료들도 있고 부수입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띌만큼 돈을 잘쓰는 은행원들도 있지만 맑은 자리만 돌아서 그런지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가져본 기억이 없다。

가끔가다 마누라가 쓰고있는 가계부를 들여다 보면 월급봉투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또 월급봉투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내 자신이 무능하게도 느껴진다。

부모님 모시고 남매를 거느리고 여섯식구가 꾸려가는 살림살이를 기록해 놓은 가계부를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 한숨소리가 절로 솟아나오는것 같기도 하다。난방비와 급탕료、전기、수도、가스、일반관리비등을 합해 다달이 내는 아파트관리비가 13만3천원、주택자금 월부금이 4만6천원、이 두가지만으로 월급의 절반이달아나 버린다。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1만5천원、전화료 7천원、신문구독료와 TV시청료 5천원도 고정적인 지출항목이다。주식비는 5만원、부식비는 6만원으로 잡혀있다。찬거리는 하루 2천원꼴 이상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 마누라의 방침인것 같다。

옷가지나 신발、장난감、간식대등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2만원 정도—。다른 돈 2~3만원이 여섯 식구가 한달동안 써야 하는 기타 비용이다。가끔은 놀러도 가야하고 옷도 사입어야 하고 때로는 손님도 치러야하고 차단스 월부금도 내야하고 이리저리 쓰다보면 매달 몇만원은 적자다。

마누라가 정해둔 원칙이 있다。보너스는 전부 아빠가 쓰되 그대신 용돈은 일체 집에서 가져가지 말것。병원갈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 여행갈 때 등이나 생일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비용을 전부 아빠가 부담할 것 등。

가장으로서 내가 스스로 지키는 원칙은 매달 나는 가계적자를 메워줘야한다는것。

1년에 다섯번 받는 보너스는 본봉과 금융수당 합계액을 기준으로 5백%—。한번에 26만4천원으로 1년에 1백32만원이다。달로 쪼개면 11만원인 셈이다。

늘 모자란듯싶지만 그래도 어떻든 빚진것없이 생활은꾸려온셈이고 이나마 집과가재도구를 마련한것도 그힘없는 월급봉투 덕분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

둔촌동등 주공아파트 31평짜리—。여섯식구 살기에 모자라는 집은 아니다。컬러TV에 전축、전화、가스레인지、장롱、책상…호화롭지는 않지만 있을만한것은 어지간히 다갖추고 있는셈이다。

이만하면 중류생활을 하는 소시민이라고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런대로 만족을느끼고 살아갈수있는 생활인것도 같다。때로는 염증과 환멸을 느껴 어디 옮겨볼까하는 생각도 해보지않는것은 아니다。용기도 없고 발전성이 없으며 개미쳇바퀴 돌듯 판에박은 생활이다。보수가 좋은것도 아니다。

두어번 받아본 스카우트제의를 오랜망설임 끝에거절한 것은 스스로 은행이 역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本人 요청으로 實名은 비공개】

"電話가 나왔다" 온집이 祝祭

洞書記

집안이 온통 축제분위기이다。온 식구가 그동안 전화가설을 얼마나 고대해 왔었을까。洞서기 생활 15년만에 처음으로 가장의 체면을 세운 기분이다。

잦은 비상소집이다、급한 연락때마다 나에게 전보를 치느라고 동료들이 고생해야 했고 그때마다 뒤늦게 달려나온 나는 동료는 물론 동장님과 사무장님께 큰 죄를 지은것 같았다。비록 삭월세방(보증금40만원에월4만원)에 놓은 전화지만 앞으로는 연락때문에 동료들에게 괴해를 주지는 않게됐다。

큰애(圭哲)가 제엄마 눈치를 살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값오른다고제지하려는 것을 나는 눈짓으로 말렸다。나도 어제 개통전화를 받고 당장 집으로 뛰어오고 싶었는데 애들이 기뻐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달 봉급은 내생애 최고의 액수를 기록했다。44만4천원。봉급과 보너스 40만원에다 올해중학교에 진학한 큰애의 학자금지원금 4만4천원이 더얹어졌기때문이다。동료에게서 꾼돈 20만원을 우선 갚았다。

내가 아침식사를 거르기 시작한것도 벌써 만 3년이 넘었다。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였다。집사람에게는『밖에 나가면 점심을 잘먹는다』고 말하면서 점식에 어느덧 익숙해졌다。그러나 점심때가 가까와지면 허기지는것은 어쩌지 못하겠다。민원을 처리하다보면 그점심마저 또거르게마련이다。다른동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문인지 나는 나이에비해 한결 늙어보인다는 얘기를 듣곤한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가난을 물려줄수는 없는데 마음대로 안되니 걱정이다。15년전 결혼당시 형님으로부터 해방촌의 3만원짜리 전세방을 물려받던 쓰라림을 되풀이할수는 없다。

매달 1만3백원씩 붓는 15년부 8백만원짜리 주택부금을 시작한지도 2년이 넘은것같다。3년여전 부터는 봉급을 타면 무조건 10만원을 떼내 저축한다。생활은 3개월마다 나오는 보너스로 3개월치 식량과 연탄을 한꺼번에 비축한다。나머지 10만원으로 살림을 꾸린다。먹고산다는것은 소득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면 크게 불편할것은 없다。내 담배값과 교통비등은 매월 나오는 숙직비(보통6일에 한번꼴로 숙직) 8천원、출장비 1만2천원등 2만원으로 쓴다。술은 끊은지 8년이 넘었고 담배는 한대를 세번에 나누어 피우는것이 몸에뱄다。

× ×

洞행정은 최일선 민원창구이다。일선창구에서의 민원처리속도나 대민봉사 태도는 바로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좌우할수 있다。

최근 수년동안 정부가 복지행정을 추구하면서 그동안 구청등 상급기관에서 관장하던 여러 인허가및 신고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통신시설이나 복사장비등이 크게 보강됐다。

3년전만해도 주민등록등초본등을 떼려면 일일이 필사를 해야 했다。담당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지리하고 힘들었다。그러나 지금은 등초본떼는데 3분이면 된다。그런데도 독촉은 더 심해지는 경향이다。전에보다 늦다고 날펀한다。

오늘 오후에는 국민학교2년생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왔다。1백원짜리 동전 한잎을 달랑 든채 이소년은 龍山역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이라고만 말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여서 틈반을 모르고 세대주성명도밝히지 못하면서 서류를 떼러오는 경우가 많다。

차례를 기다리고 「담배말이」를 안던지는것이 요즈음 민원인들의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수있다。판자에 못을 박아 접수증을 꽂아놓도록하고 접수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는 지켜지게 돼있고 5백원짜리나 1천원짜리를 담배처럼말아 슬그머니밀어넣는 「촌지」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됐다。

漢江路2洞사무소로 부임한지 3개월쯤지난 79년9월쯤이 었을께다。龍山역전 창녀촌(지금은 공문서상에 이 표현을 사용치 못하게해서불량소녀촌으로 통한다)에 주변정화점검을 나갔을때 한두번 마주친 기억이 있는 20대초반 아가씨가 나에게 다가와「아저씨 점심식사나 하세요」라면서 1천원을 건네주려고했다。끝내 사양했지만 급히 돌아서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왠지 내모습이초라한것같아 부끄러웠다。

「짧은시간 손님」을 받는데 그때 3천~5천원이었다고 들었다。그런데 왜 나에게그런 동정을 베풀려고했을까。나를 보고 고향의 오빠나 부모를 생각한 때문인지도모르겠다。

부조리문제는 귀에 못이박히도록 들어왔다。때때로 관내 음식점등의 개업식에초대받아 떡과 음식을 대접받고 담배선물을 받으면서 인정과 부조리의 차이를 생각하곤한다。거리질서 단속때문에 새벽부터 관내를헤매던 내가 해장국집아주머니 손길에 끌려 식사를 대접받을때도 마찬가지다。지난 연말에는 관내 모조합에서 보내온 사과 두상자를 되돌려 보내면서 직원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쓸쓸한 표정들이었다。

하기야 인정이란 탈을쓰고 부조리를 범한경우도 많이있었을 테니까。나쁜 구습은과감히 쓸어버려야 하겠지。

정을 생각할때면 5년넘게 있었던 해방촌인 龍山區新興洞(현재의 龍山2街洞)가난한 사람들의 인정을생각하게된다。지금 생각해도 그들의 인정은 과장이없었다。

× ×

漢江路2街52의2호에는34세대가 살고있다。일식 목조가옥의 방과 복도、거실마다 1세대씩이 차지하고 있다。오늘아침 34세대중 12세대가 동회로 몰려왔다。전입신고때는「거주이전의 자유」때문에 신고인이 기재한대로 접수처리하게 돼있는데 52의2호로 기재했던 가구는 전기료의 가구별누진혜택을입었으나 2街52로만 기재신고한 12가구는 이혜택에서제외됐다는 것이다。2街洞관내에서 52의2호로 전입하는절차를 밟아야한다。아침도 거른채 또 점심을 3시넘어서야 먹을수 있었다。

지난76년6월 내가 이곳에 부임한이후 업무량은 2배이상 늘었는데도 인력은 19명에서 오히려 1명이 줄었다。6년이 가까와오고 있다。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가정·영업·다량할 오물수거료 고지서가 한꺼번에 몰릴때는 1統에2백건이 넘는다。토요일도 저녁7시이전에 퇴근한 기억이 별로 없다。

공무원의 최말단직위에있는 것이지만 나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문이다。

【曺子煥·43·서울銅雀區舍堂洞山22·洞서기】

「生命」과「生計」사이 입씨름도 웃으며

약국

서울江西區禾谷5洞 주택가에 자리잡은 제일약국주인 吳尙東씨(30)는 개업한지 1년반 경력의 젊은 약사다。76년 서울大약대를 졸업、78년3월 군에서 제대한뒤 鍾路5가 범섬약국에서 1년여를 관리약사로있다가 내사업을 처음시작한날을 영원히잊지않기 위해 79년12월24일、크리스머스이브를 택해 개업했다。

제일약국이 속해있는 江西區에는 2백75개약국이 있는데 2천여세대의 아파트단지를 끼고있는 이곳 반경2백m안에만도 7개의 약국이 난립해있다。

『약국경기도 한풀갔어요。요즘같으면 투자액의 이자나 뽑으면 잘되는 셈이죠。중류생활정도라도 유지하면 다행이고요』짜증스런 얘기를 하면서도 웃는 얼굴이다。

『항상 웃으며 손님을맞아야하는 개업약사의 매너가몸에 배었는가 보죠。요즘 하루매상은 20만원정도될까요。한달 평균26일 문을 여니까 월매상액은 5백만원 선으로 봐야죠。약값의 평균 마진율을 30%로잡아 순수입은 1백50만원、여기서 월세와 인건비(관리약사 1인을 두고있다)로 50만원정도가 나가고 그밖에 각종 세금과 경비 10만원쯤을 빼고나면 알짜수입은 80~9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도의 수입이면 이일대 다른약국의 곱절 수준이다。큰길 네거리에 자리잡아 목도 좋고 가게가 법정 하한평수 4·5평의 배로 비교적 넓다。손님과의 인간적인 친숙감을 바탕으로한「密着販賣」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의 장사매너도 매상에 한몫을 한듯하다。

『주택가 약국은 주부상대죠。매너에 못지않게 마스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주부고객들과 친숙해지면 가게PR효과가 크지요』

그러나 이렇게 고심해 번 수입을 달리계산하면 별것도 아니라는게 吳씨의 얘기다。그는『1천만원이 훨씬넘는』가게보증금을 포함해서 내부시설비 약품구입비등 모두2천5백만원을 투자했다。

투자액을 3부이자로 계산하면 월75만원。아침7시부터 저녁10시까지 온종일서서 번 수입하고 별차이가없다는것。

鍾路5가 南大門시장 永登浦시장일대에 하루 몇백만원의매상을올리는대형약국들이 있다。그러나 법정하한평수를 겨우유지하면서 하루매상 10만원정도하는 약국이 절대다수를 차지、약국업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약품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통질서가 가장 엉망인상품으로 꼽혔었다。마진율이 1백%를 넘는 약품들이 적지않았다。

『약품구입채널은 세일즈맨을 통해 메이커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현찰구매와 외상구매가 있는데 현찰이 외상보다 싼것은당연하죠。구매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혹은 메이커및 제품의 有名度에 따라 값이 차이가 나죠。요즘같이 불황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메이커들이덤핑을 하는것도 유통질서에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이처럼약품은 매입단계에서부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값도차이가 날수밖에 없다。

비슷한 성분의 약품들이메이커에서마다 쏟아져 나오고 값도 천차만별이다。

많이 달리는 50여개품목에 대해서는 제값받기 운동(표시가제도)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지켜지고 있다。그러니 나머지 2천여개 품목은 보나마나다。

변두리에선 표시가가 어느정도 지켜지나 중심가로 갈수록 잘 안지켜진다。

그러나 보다 큰문제는 약사에대한 일반의 不信경향이다。

『어디가 아픈데 이러이러한 약을 달라』고 스스로 처방을 내려버리는 손님을 대할때는 가운이 창피하고 서럽기까지하다』고 말한다。

그런사람에겐 도시 상담이 필요없고 상담이 오히려 싸움이 되기 십상이다。

생명을 다루는 약사를 하찮은 장사꾼으로 취급하는사람들에게서 그는 당장약국을 집어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약광고의 범람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엉터리 약상식이 범람하고 있는 탓이다。

『약품광고비는 매출액의0·5%선이 적정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우리나라는 1%가 넘는다고 합니다。또 전체광고비의 20%를 약광고가 차지하고있다고 해요』

吳씨는『약이란 선전만 하면 팔린다』고 믿는 메이커측의 과잉선전으로 매상액이 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가 권하는 약은 이문이 많기때문일거라는 생각、그래서 바가지를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은 이제 고쳐졌으면 한다는 것이 吳씨의 바람이다。

그러나 약사에 대한 불신은 그들 스스로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다。약국매상액의대종은 조제약이다。일반적으로 賣藥은 유명도가 높은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조제에는 덜 알려진 약품을 많이 쓰게 된다。

유명도가 낮은 약은 마진 폭이 좋은데다 세금도 안붙는 조제료를 덧붙임으로써이문을 배가시킬수있다。약사는 이 조제를 좋아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렇다고 조제에 쓰이는 약이 함량미달은 아니다。모든약이 정밀한 함량조사를 거쳐 출고되기때문이다。

『조제가 많이 남는것은사실이지요。그러나 이문만 생각해서 조제를 한다는식의생각도 잘못된 겁니다。약은증상에따라 양을 복합적으로조절해서 써야하는 겁니다』

吳씨는 약사들을 화나게하는일이 또하나 있다고 털어놓는다。

『약사란 온종일 서서 쉴새없이 말을 해야하는 고달픈 직업이죠。그래서 이지역에서도 밤10시면 문을닫기로 약국끼리협의를했어요。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투들거렸더군요。그시간에 약국을 찾을정도의 증상이면 의당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대개의 약국들은 아침7시부터 저녁10시까지 문을 연다。9시넘어 문을 열어 저녁7~8시면 문을닫는 병원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병원이 문을 일찍 닫는다고 하는 말은 못들었어요。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리도 못들었구요』

지난해 결혼한 부인과 약국앞의 주공아파트(13평형)에서 살림을 하고있는데 월생활비로 20~30만원이 드는것 같다고 했다。

【吳尙東씨·30·江西區禾谷5洞·개업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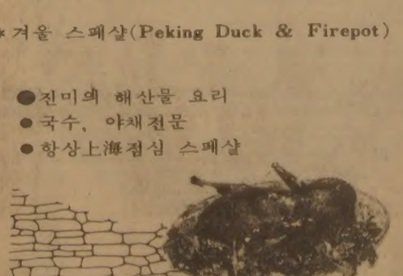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대그우드, 자네 일이 힘든다는걸 나도 알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한테 말할 기회를 안주는 걸세"　"알아주시니 기쁘군요, 사장님…왜냐하면요…"　"내 얘기 끝날때까지 입좀 다물지 · 못하겠나?!"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HAN KOOK IL B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킨)

한국일보 특집판

小市民의 自畵像···우리들의 生活日記

庶民의 24시

"5원만 깎아줘요" 꼬마손님과 씨름

문방구점 구멍가게

히루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꿇임만하면 찾아드는 꼬마손님들。등하교 시간때면 4평 좁은 가게는 한꺼번에 10여명씩 떼지어와서는 이것저것 들춰보고, 값을 물어보고, 물건을 내주고, 거스름돈을 챙겨주고… 정신없이 북적댄다。

아침6시 가게문을 열어 밤12시 닫을때까지 솥처럼 한가하게 쉴틈이 없는편이다。

장사가 바쁜것으로 생각하면 금새 부자라도 될것같지만, 늘 쪼들리는 생활。

서울 백산국민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겸한 구멍가게를 하고있는 金鍾植씨。

이른 아침부터 자정무렵까지 항상 바쁘게 돌아가도 한달수입은 20만원안팎으로 항상 정해졌다。

4천5백원에 떼온 라면 50봉지 한박스를 다팔아야 5천원으로 5백원이 남고 연필종류중 제일비싼 1백원짜리로만 12타스 한상자(1백44자루)를 모두 팔아도 1천원밖에 안남는다。

구멍가게 문방구는 무엇이든 낱개로밖에는 안팔리는장사다。백화점이나 부근 아파트단지의 쇼핑센터, 슈퍼마킷등에서 단돈 10~20원이라도 싸게, 박리다매하는 바람에 손님을 다뺏긴다。50원짜리 지우개1개, 70원짜리 공책한권의 낱개손님이지만 긴 겨울방학때의 생각을하면 이렇게 와글거리는것만도 우선 고맙다는 생각부터 든다。겨울방학땐 문방구류만으론 하루매상이 4~5천원될까말까였다。

작년이맘때 14년 직장생활을 청산하면서 아무경험도없이 시작한 장사。

여러가지 장사중 제일깨끗해보이고 항상 북적대 잘되는것같아 문구점만으로 처음 시작했었다。그러나 작년에 특히 유별났다는「문방구불황」을 직접겪어보고 무엇보다 여름방학때 정말 혼이나면서, 과자, 음료수, 食, 라면, 빙과류등 우리주변에 흔한 잡동사니 구멍가게를 겸하게됐다。

덕분에 지난겨울방학땐 학용품 4~5천원을합쳐 하루 2만5천원~3만원 매상을 올릴수 있었다。

요즈음 히루평균매상은 3만원~3만5천원선。학교앞이라서 자유학습날인 토요일이면 학용품은 거의 안팔려 2만5천원정도로 매상이 떨어지고, 대신 일요일은 학교운동장에서 축구시합같은걸해 음료수류등이 많이 팔려 하루4만원~5만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구멍가게는 2할 장사다。그러나 꼬마손님들 졸림에 5원씩 10원씩 깎아주다보면 실제로는 1할5푼장사가 되기 십상이다。

3월20일 토요일 하루에만 2만8천원어치 가운데 학용품은 6천4백원 과자류가 1만2천원어치 나머지는 음료수등을 판것인데 순익을 따져보니 4천9백여원으로 2할장사가 안된다。

백산국교앞에는 金씨의 가게말고도 정문앞에 2개가, 후문앞에 또3개가 더 있어 한학교를 보고 6개가 되는 비슷한 문방구를 겸한 구멍가게들이 진을 치고있다。단돈 몇원만 비싸도 발길을 돌리는 꼬마손님들의 비위를 안맞출수가 없다。

한달벌이를 20만원정도로 치고 지출은 전기료2만2천원(가게안 소형냉장고2대등 때문인지 비싼편이다), 수도요금1만2천원, 식생활에10만원등이 들어가 月17~18만원정도 나간다。달은 얼마씩이라도 저축할 여유가 없다。

리어카 중상(中商)과의 외상거래도 월말이면 계산해야하고 가끔씩 남대문이나 청계천문구 도매상에가서 5만~10만원어치씩이라도 물건을 떼와야한다。

부인(46)과 국교3년짜리 장남, 큰딸(19)등 4식구가「먹고 사는것 뿐」이다。큰딸은 전자제품회사에 나가며 月10만원정도 벌어들여와 제용돈을쓰고 살림에 얼마간을 보태주기도해 오히려 딸로부터 도움을받고있는셈。

다행히 가게가 자기집이라서 전세와 월세로 따로 나가는 돈이 없기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것。

金씨는 지난해 만10년간일하던 소주회사 병유리공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으로 5백40만원을받고 살고있던 仁川부평동의집을팔아 현재의 방4개 건평30평짜리의 가게딸린집을 2천5백만원에 샀다。

부엌달린 방1개는 2백만원에, 또 작은방하나는 1백만원에 각각 전세를들여 3백만원을 집사는데 보탰다。생계유지에 바빠 저축을못하나 이것이 계속 빚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유리공장의 요로(유리녹이는 용광로) 근무 기능공이었던 金씨는 연간보너스까지합치면 月47만원정도 받았었다고 말하면서 장사가 어디매이지않고 쉬워보여도 월급장이만 훨씬못하다고 고개를젓는다。

더구나 이제구멍가게는 슈퍼마킷과 백화점의 박리다매에 눌려 끝장이나고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호화롭고, 깨끗한시설들을 구경도하면서, 흥붕한 조명탓에 구멍가게물건보다 훨씬 좋아보이기만 하는 물건들을, 그것도 단돈 얼마라도 싼값에살수 있으니 백화점이나 슈퍼등 대형업소에 몰려가는것도 당연하다。

金씨는 자기가하는 구멍가게일을 10원짜리를 긁어모아 다시 몇만원 목돈을 만들어 물건사다 파는 심부름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4식구 생계를 꾸려가는것뿐이라면서 웃는다。

고민이라면 그래도 3백50만원어치나 되는 가게물건이 회전이 안돼 다른 꼭필요한 물건을 제때에못사는등 아무리 구멍가게지만 절대적으로 밑천이 달려 제대로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자기집을 마련했다는것에, 金씨부부는 무엇보다 만족하고있는듯하다。

【金鍾植·47·서울九老區始興3洞935의90·구멍가게 주인】

5시30분 온가족 새벽기도

外販員

『아모레아줌마』―。모두들 나를 아모레 아줌마라고 부른다。宋正玉(40세)이란 이름을 알려하지 않는다。아모레 아줌마하면 다 통하는데 굳이 이름을 알 필요까지 없다는 투다。초록색 잠바를 입은 내 모습이 아는 사람에게 보여질까봐 가슴을 졸였던 외판매 초년병 시절에는 누가『아모레 아줌마』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다소 창피한 생각까지 들었던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그부름속에서 많이도 변해버린 또다른 나를 보게 되고 긍지도 느낀다。이름을 부르는것이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질때가 있고 아모레아줌마라고 불러주는 것이 정겹고 친밀스럽다。

친구들, 이웃들,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나의 생활신조였다。그래서 가능한 한 누구 의심하려 들지 않고 모든일을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해왔다。믿고 서준 보증이 잘못돼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지는 미처 예기치 못했었다。가난하지만 우리 가정은 단란했다。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을 받들며 네딸이 별탈없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마냥 행복했었다。

풍족하지는 못했어도 화기에 찼던 우리가정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잘아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것이 사기꾼들이었다…。하루아침에 맨손으로 이루어 놓은 집과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알거지 신세가됐다。남의집 옥상을 빌어 기거를 했으며 착란증세로 고통을 겪기도했다。굶을수는 없는 노릇이고 화장품 외판원생활을 마다 할수도 없었다。엄청난 시련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뿐일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닌가。

우연한 인연으로 太平洋化學홍제동 특약점을 찾았다。보증인이나 보증금도필요없이 다음날부터 담당구역인 문화촌일대를 누비기시작했다。

『부업을하지못할까』각오는 단단히 서있었지만 화장품외판원생활이란게 여간 힘겹지않음을 비로소알게됐다。『4년제대학은 아니지만 淳州敎大출신이다。대학물까지 먹었는데 화장품가방을들러메고길거리를헤매다니…』중도에서 포기해버릴까하고 마음먹은적도 한두번이아니었다。처음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무엇을 어떻게할지몰라하며 육교위에서 그만 울음보를터뜨린적도 적지않았다。아는사람을 만날까봐 가슴을 졸였으며 길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는것만같았다。

고난은 더해가기만 했다。남의집 대문을 무심결에 들여섰다가 개한테 물린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더욱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은 발이 퉁퉁 부어 오르도록 열심히 뛰었지만 팔린 화장품은 고작 몇만원에 그쳤을때다。물집이 터져 쓰리고 아픈 발을 이를 악물고참아가면서매몰찬거절과의 싸움을계속해야만했다。좌절할수는 없다。

새벽5시30분이면 아빠와 네딸이 잠에서 깬다。오늘도 우리가정에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아침기도를 하며 요한복음14장을 읽는다。학교에서 1~2등을 해 대견스럽기만한 네딸을 학교보낸후 강서구신정동집(건평50평、35평은교회이고 나머지15평은 교회에 딸린 살림채)을 8시에 출발 9시께는 홍제동 특약점에 도착한다。화장품을 대충 챙긴후 9시40분부터는 영업활동에 들어간다。연약한 동료들은 20군데를 돌룰까 말까하는데 나는 하루평균 30군데를 방문한다。『1m68㎝의 키에 건장한체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다행스럽지않다。하오7시께면 하루일과를 끝내고 귀가길에 오른다。집대문을 들어서면 주체할수 없을정도로 피로가 몰려오지만 식구들이 모여 그날의 일과를 오순도순 얘기하노라면 언제그랬더냐싶게 피로가 가산다。일요일에는 하루종일 교회일에 매달려 신앙심을북돋운다。

어느새 올해로 만4년동안 화장품 외판원생활을 해온 셈이다。정신없이 일만해온가운데 수당도 크게늘어났다。열심히 노력한 댓가이고、그동안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했기때문이다。동료판매원들의 한달평균수입은 15만원안팎―。30만원수입을 올리는 판매원도 그리 많지는 않다。내가 한달평균 세금을제외하고 손에 쥐는 수입은 50만원선。어찌 생각하면 돈 벌기는 쉽다는 생각이 든다。열심히 노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응한댓가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그 번다는 돈을 아껴쓰는 것이 더욱 중요한것이다。계획성없이 헤프게 돈을쓰다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모자라게 된다。지금까지 한푼도 돈을 헛되게 써본적이없고 최대한 절약하고검소한 생활을꾸려나가고있다。50만원중 10만원정도를 주식비와 부식비로 떼어 놓는다。연탄값으로 월 3만6천원을쓰고 전기료 오물수거료하수도료등 관리비로 4만원정도가 나간다。아빠의 종교관계서적을 구입하는데 5만원을 지출하며 월평균교육비가 3만원선。네딸의 하루용돈은 모두 합해 1천원을 넘긴 적이 없으며 옷은 1년에 한두번 새옷을 사 입히는 것이 고작이다。언니의옷은 동생에게로、그 옷은 다시 그아래동생으로 대대로물려진다。잡비는 교통비와 의료비로 2~3만원이 나간다。그러니까 한달생활비는 3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셈이다。목사인 아빠가 약간의수입이 있어 월2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근면과 저축생활로 지난2월20일에는 자그마한 교회를 지을수 있었다。한푼도 헛되게 쓰지 않고 벽돌을 사고 함판을 사서 20명정도를 수용할수 있는 교회가 완공을 보았다。교회당 낙성식에서는 주체할수 없는 감동으로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었다。외판원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안돼 남편은 위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었는데 40여일간의 단식요양끝에 기적적으로 회복、다시일어나 목사가 됐고 그가 일할 터전인 교회까지 세웠으니 흐르는 눈물을 가눌길이 없었다。

이제는 매일의 생활에 의욕과 리듬이 생기는것같다。건강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앞날을 맞을 것이며 4년정도로 끝내기로했던 당초계획을 바꿔 2년만 더하자고 마음을 고쳐먹으며 캐리카의 손잡이를 굳게 잡아본다。

【宋正玉씨·40·서울江西區新亭4洞·太平洋化學弘濟洞특약점외판원】

6시 출근길… 아직 꼬마는 꿈속에

이발사

잠이 깼다。어김없이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있다。秀熙엄마도 따라서 일어난다。막내딸 秀熙는 아직 새록새록 코를골며 잠들어 있다。

큰딸 秀英이와 둘째딸 秀善이가 잠들어있는옆방도 고요하기만하다。

구겨진 골덴바지와 잠바를 주섬주섬 입으니 秀熙엄마가 토큰 두개와 5백원짜리 두장、1천원짜리 한장을 호주머니에 넣어준다。

눈으로 깜박 인사를나누고 문화촌 산비탈을 종종걸음으로 내려와 광화문으로 가는 69번 버스를 탔다。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자리가 텅텅 비어있다。

빈의자에 걸터앉자마자 어젯밤 秀熙엄마가 해준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는 큰딸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다。엊그제도 어제도 맏딸 秀英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푸념을 했다고 한다。셋방살이를 하는 가난한집안에 태어난 秀英이는 공부를 잘해 2학년에서 모두「수」를 받았다。엊그저께 반장선거에서 10명의 후보에 들었으나 반장이나 부반장도 되지못했다。어제는 반장이된 상범이가 12명을 자기집에 초대했다。秀英이도 초대를받아 갔다。12명중 秀英이와 다른아이 한명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선물을 하지못한 탓인지 상범이는 섭섭하게 대하는것처럼 느껴졌던것 같았다。秀英이는 돌아오자마자『돈이 있어야 공책 한권이라도 사갈수 있지 않아』하고 볼멘 소리를 했다고한다。秀熙엄마는 새학년이 된후 우리살림살이로서는 큰돈인 5천원짜리 한장을 들고 담임선생을 찾아갔다고 한다。답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일기장을 조사해보던중 秀英이가『나도 반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쓴 내용의 일기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배우지 못한것이 한이되어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 왔으나 여전히 아이들의 뒷바라지엔 신경조차 쓸 여유가없어 울적하기만 하다。

7시10분、광화문 中央이발소에 도착、세면을 하고 1천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었다。오늘따라 19살때 머리를 감겨주는 견습시절、수도가에서 먹던 밥맛만도 못했다。

2남2녀중 막내였던 나는 4살때 아버지가 별세、가산이 기울자 큰누나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옆집에 이발소 다니던 친구를 사귀게 되어 이발소에 기거하면서 견습이 됐다。

반찬값을 아끼려고 밥만지어 수도가에서 물을 반찬으로 삼아 국에 말아 삼켜버리곤 했었다。

아침손님을 맞아 면도와 세발을 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4명의 손님이 다녀간후 더오지 않는다。아침손님은 이제 끝난것이다。

한가로와지자 면도사들은 일진이 좋다면서 즐거운 표정이다。이발요금 6천원에 1만원짜리를 놓고 갔기때문이다。보통1~2천원에 비해 많았다。팁은 지역에따라 다르다。

무교동같은 지역은 서비스도 다르겠으나 팁이 후하다고 들린다。광화문지역은 알뜰손님이 주류를 이루어 2천원 안팎이다。최근 몇년사이 팁은 퇴폐적인 서비스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기도하다。78년과79년호황때에는 서비스와 관계없이 인심도 후해서 명절때에는 회식을 하라면서 수만원씩 주고가는손님이 있었으나 최근엔 그런 손님이없다。혹가다가 수표 한장을 놓고가는 경우가 없는것은 아니다。팁은 바로 주인과 면도사의 수입이된다。팁을 균등배분하는 업소도 있고 주인이 50%、손님을맡은 면도사가 50%씩 나눠 갖기도한다。

이에따라 고용된 이발사의 수입은 면도사만도 못하게된다。

이발사는 日當을 합쳐봐야 월20~25만원선인데 비해 면도사들은 월15만원의 고정월급에 팁을합치면 30만원이웃돌게된다。

이발사는 남아돌아 3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고있다。

면도사들은 최근 몇년사이에 퇴폐업소가늘어나면서 이미지가나빠져 견습이 거의끊어져버렸다。

이발업이 신고제로 바뀌어 늘어남에따라 면도사의 수요는 급증하고있는데 비해 공급이달려 면도사의 대우가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 이발사가 면도사를 통솔하기 어렵게되어버렸고 상하관계가 깨지고있다。

점심때가 지나면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15개 좌석이 꽉찼다。

코를 골고자는 손님、큰소리로 면도사와 농을 주고받는 손님、왜 서비스하는 아가씨가 없냐면서 신경질적인 손님、각양각색이다。

3시가 넘으니 배가고파 콩나물밥을 사먹고 돌아오니 몇분의 손님이 들어와있다。

8시에 일이끝나고 주인으로부터 일당8천원을 손에쥐고 집에 돌아왔다。

秀熙엄마에게 전네주자 오늘은 많다는 표정을짓는다。김치와무우장아찌뿐인반찬에 밥은 고봉으로 담아 상을 차려왔다。

하루종일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얼마나 고생했냐는 표시인것만 같다。

눈먼팁을 포함、한달에 25만원내지 30만원 수입으로 고교1년생인 조카까지합쳐 6식구가 생활하고있다。

결혼7년만에 조그만 집을 장만했으나 둘째딸이 두번씩이나 큰수술을하는바람에 집을팔았고 지금은 2백5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있다。秀熙엄마는 이런 수입에서 7만원을떼어 1백50만원짜리 契金을붓고있다。

산꼭대기라도좋으니조그만 집을장만해서 아이들이 활기좋게 뛰어놀게하고 이발소라도 자영하는것이 秀熙엄마와 나의 꿈이다。

우리는 결혼12년에 극장구경을 딱한번했을정도로 바둥거리고있으나생활이피어나지않아 비애를느끼는때도있다。하나 우리내외는 서로격려、위로하면서 이겨내고있다。

봄이다가기전에 아이들의 몇년째 소원인 민속촌구경을 시켜주자면서 秀熙엄마의 손을 꽉잡고 잠을청한다。

【金明鎬·49·서울西大門區弘恩2洞山48·이발사】

「팁」주는손님은 왜 없는지

364일…마지막버스의 단골

웨이트리스

아침7시가 넘어선 시계를 보며 겨우 눈을떴다。언제나 아침이면 그렇듯「정말이지 하루만 쉬고싶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뱅글뱅글 돌고 있다。밤의일만도 힘겨운데 학원공부까지…。

이런 아침이면、공부는 그만 집어치울까、약한 생각이 자꾸만 든다。

재수생 웨이트리스―。어딘가 어울리지 않고、그래서 세상의 눈총을받고 사는것같은 기분을 떨치기어렵다。앞으로 바라는대로 대학에가 공부를 계속하려면 지금형편으로는 어차피 계속해야 될일。마음을 도사려 먹는다。

엊저녁 다툼으로 화가안풀렸는지 언니(26)는 아침밥과 도시락싸줄 생각을않고 이불을쓴채 누워만 있다。

영등포 도림동 A아파트의 1백만원짜리 전세방。자취생활을하며 내뒷바라지를 해주고있는 친언니지만 아직도 내가 웨이트리스일을 하고있는줄은 모른다。

밤12시 가까와야하는 귀가시간과공부때문에 언니는 늘상 짜증이다。시간에쫓겨 허둥대며 만원버스를 겨우집어타고 龍山학원에 간다。

교실에 들어서면 조금씩 수척해보이는 재수생들이 열심히들 책을 들여다보고있다。공부만을 저렇게 열심히하는데 내가 과연 저들과 겨뤄 합격할수 있을까、두려운 생각이 들곤해 다시한번 마음에 채찍질。

점심시간。도시락없이 나왔으니 식당에가 7백원짜리 비빔밥을 사먹기로 한다。1천원권지폐가 기운없이 매점아저씨 손에 넘어가고 싸늘한 동전3개와 식권이 쥐어진다。오늘 벌써 1천원을 써버렸어…。자취방 책상도 망가지고 학원비3만5천원도 내야하는데…。

하오수업을 알리는종소리。졸음과의 싸움에 오늘도결국은 지고말았다。처음20여분은 잘참았는데 그다음엔 볼펜을 쥔 손가락에 자꾸만 힘이 빠지며 비몽사몽、엉망진창의 수업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5교시수업이 끝나자마자 하오4시정각의「출근」시간을 대기위한 또한번의 뜀박질。

남영동 전철역부근에서 한때의 내또래 젊음을보았다。환하게 웃으며 그나이에어울리는 차림들…。내젊음이 창백한 얼굴로 희미하게 다가서는것을 머리를 흔들며 지워버렸다。

갑자기 내가 일하는 밤시간이 내것이아니란는데 격한 감정을 느꼈다。

시청앞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또한차례 뜀박질로 겨우 시간을 댄다。

출근상황 점검에 이어「나이터」교육을 받는다。이젠 숙달돼 더들을 필요도없지만 빠짐없는 일과의 하나다。곧이어 홀테이블의 청소、정돈을 마치면 하오5시 국기하기식과 함께 우리의 맹세등 6조항을 합창한다。

함께일하는 아가씨들은 모두30명정도。대기석테이블에 둘러앉아 한시간이 채안되는 하루중 유일한 휴식과 대화를 즐긴다。

하오6시를 전후해 손님들이 들어오기시작하면서 곧바로 무대공연이 시작된다。

내번호는 18번。하루는 앞번호부터、다음날은 뒷번호부터순서대로 테이블·서비스에 들여보내진다。

1번테이블에 한국사람과 일본인일행이 8명이나됐다。이런경우 일일이 기분을 살펴서비스하기에는 좀 벅찬데도 같이왔던 한국인여자가 5천원을주었다。

『안녕하세요、18번입니다。무얼 드릴까요』맥주를 나르고、따르고 나서『즐겁게 드세요』했더니『응、고마와、이곳도 많이 변했군』『어디가 달라졌나요』『아가씨가 즐겁게 드세요 하는 인삿말 같은것…』이 40대신사분은 오랜만에 들른 고국의 변한모습을 이런 맥주홀 아가씨의 인사말에서도 느낀다고 했다。처음 대화 몇마디로 이제는 손님의 됨됨을 내나름대로 점친다。

우리는 팁(봉사료)으로 생활하니만큼、물론 우리들말로「팁의 윤리」를 지키는 손님이 좋다。

팁을 주는 고마운 손님도 있지만 정말이지 대하기 싫은 손님도 있고 더러는 계산을 않고 도망가는 정말 악질적인 손님까지 있다。

우리아가씨들이 계산서를 작성하는것도 아닌데 비싸다고 야단을 치거나 깎자고 흥정을 하려드는 사람、일단 테이블에 앉고도 주스1잔만 시키거나 숫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어떨땐 경리와 꼭 트러블이 생기고 눈물을 보이게 마련이다。

맥주를 사다가 집에서 TV를 보며 마실일이지업장료를 따로 받지도 않는 극장식 맥주홀에와서 그냥구경만 하겠다는것은 너무하지않은가。

작년 X머스무렵에 한번、4만7천여원짜리에 이어 20여일전 나는 또한번 3만2천원짜리 도망손님을만났다。손님이 계산을 않고 그냥 가버리면 다른 아가씨들한테 꾸어서라도 그테이블 당번인 내가 당일로 경리에 현금지불해야만한다。

3~4일을 밤11시10분 퇴근시간까지 꼬박서서 일하는 댓가로 만져 볼수있는 돈을 한순간에 날려보내고나면 며칠씩 밤잠을 못이룬다。

외국인들은 습관이겠지만 유머와 여유가 있어보이는데 비해 우리한국인들은 무대위에 펼쳐지는 쇼와마술등 신나는 구경을 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즐기는 표정의 분이 그리 많지 않은것같다。사무실에서 복잡한 서류나 뒤적일때는 어떤표정일까 싶은 불쾌한 얼굴을 하고 쇼를 구경하는분을 보면 너무 여유가없어보인다。

밤10시50분쯤 마지막 테이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홀안을 정리하면서 주머니속을 생각해본다。오늘「제돈」1만원은 아까 냈다。그러고도 17~8천원이 남은걸보니 2만원가까이 번셈이다。아가씨들끼리의「제돈」형식으로 하루1만원씩 내는것만 그날버는 팁으로 꼬박 부어갈수 있으면한달30만원수입이다。

사장님이 주는「교통비」月4~5만원정도외에는고정월급이 없는대신 이「제돈」30만원이 우리의 사실상 월급인 셈。

1년에 설추석 단하루를빼고는 일요일、공휴일도 없이「3백64일」을 꼬박 일하게 돼있고 요즘처럼 하루5~6개 테이블을 계속맡아 잘만하면 한달40만원까지 수입도 올릴수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대학에 갈 입학금은 적금(1백만원)으로 벌써 마련해놓았다。

매달 학원비 3만5천원과 언니와의 생활비8~10만원、시골부모님께 5만원을 송금하고도 저금통장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공부에만 좀더 노력을 쏟자、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거야。

밤11시20분、배가고파 무언가 사먹고 싶다는 생각을 누르며 미도파버스정류장에 가 마지막 버스를 탄다。

【許聖惠(가명)】

한국일보詩壇

請誘

전규태

덤불속 어두운데
성냥을 그어대자
마른 풀 태워서
구름을 만들자
땅에서
돋다 입굴 때
삶이 뒬틀기 누워 있다。
괸 물이 혼백으로
바뀐다면 버리자
인산의 의미와
[illegible] 버리자

한개피
[illegible] 마련하여
휘엄휠 불지르자。
이승의 풋꿈을랑
불똥으로 달구자
엎붙어 다가올
넋들이 춤을 출 때
한사코
흐느적거리며
못다한 노래 부르자。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 가 신 청 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제6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영(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시민告發이 迷路뚫었다

―釜山美文化院 방화사건、提報가 결정적 단서

班常會통해 犯人사진 돌려

"釜山있다"확신 搜査力집중

【釜山=盧基昌기자】부산시민의 적극적인제보정신이 사건을 해결했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釜山유인물 살포사건이 동일집단에의한 범행인것으로 단정、집중수사를 펴는한편 목격자들의 신고를 호소해왔는데 이같은 수사방향이 적중한것。방화사건 발생직후 경찰은 남녀6~7명이 가담한 불순분자들의 범행이라는 확신을갖고 수사중 21일 범인들을 현장까지태워다준 한시택시운전사 金모씨의 목격신고에따라 범인의 인상착의가 드러나게 됐다。또 23일에는 이들에게 화도그를 팔았다는 K분식점여주인의 제보가 날아 들었다。이제보는 범인검거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범인들중 적어도 일부가 부산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수사력을 부산일대로 집중투입할수 있었다。

金화식 資金責지목 신병확보 심문

文富軾·金恩淑동거… 班常會날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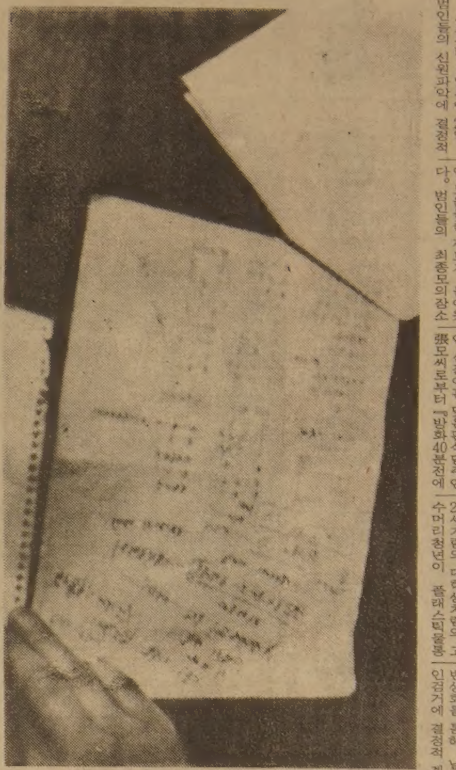
그로부터 3일후인 26일、범인들의 신원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을준 제보가 들어왔다。범인들의 최종모의장소인 산장여관 맞은편식당주인 張모씨로부터『방화40분전에 24세가량의 대학생차림의 고수머리청년이 플래스틱물통 4개를 맡겼다가 10분후에 황급히 찾아갔다』는 제보였는데 張씨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문화원 수위 文興石씨의 기억이 일치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학내불온서클관련자 5백여명의 사진을 제시、이들 두제보자로부터 주범文을 지목받았고、수사는 文주변교우관계로압축、급진전되었다。

이어『몽타지와 비슷한 청년이 있는데 거동이 수상하다』는 주민崔모씨의 제보가 반상회를 통해 날아들어 범인검거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경찰은 또李鎬喆이서울에서 붙잡힌뒤 김화식이文에게 10만원을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金화식을이 사건의 자금책으로보고 신병을 확보、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金화식과 잘아는박 [illegible] (21) [illegible] 와 B大생5명을 이달초B여大 화장실 불온낙서사건의 용의자로 연행、이번 방화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캐고있다。



◇수사본부가 압수한 범인들의 범행모의관련 서신과 메모쪽지。이 증거물들은 수사의 단서가됐다。【釜山―聯】

도주

범행후 범인들은 복잡한 국제시장 뒷골목을이용、각자 흩어져 버스편으로 자기집등 은신처로 달아났다。

주범인 文富軾과 文의 애인인 공범 金恩淑은 사건후 현장 부근에서 택시를이용、지난해 연말부터 세들어 함께 살아온 부산西區富民洞2가11 김지우씨 (79) 집에서 계속 은신생활을 해오다 지난22일 임시반상회가 열리던날 하오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될것을 염려한나머지 생활도구를 그대로 둔채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로 상경、은신하고 있을것으로 보고 뒤쫓고있다。

犯人주변

文富軾…釜馬사태때도 가담

李美玉…경찰가족 의심안해

崔忠彦…내성적、친구도없고

朴願植…성적은우수 활동적

◆文은 지난77년 부산B고교를 졸업、그해 高神大에 진학、현재4학년이다。文은 고교2학년때에도 데모를 주동했다가 정학을 당한 문제학생이다。

文은 대학2년때 어머니를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겪고있는데 학교친구는 별로없으며 金恩淑과만 친하게 지냈다。

文은79년 釜馬사태때도 데모에 가담했었다。

文의집에서는「역사란무엇인가」「러시아혁명사」「사회운동이념사」등 20여권의 이념서적이 발견됐다。

◆李美玉은 부산 東萊區巨堤3洞 740 10통1반에서 8칸 슬레이트집에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1남3녀중 막내、아버지는 10년전 사망。홀어머니는 아동복노점상을 하고있다。

큰아버지는 전직 경찰관으로 대공분야에서만 30년을근무했고 삼촌도 경찰관으로 공비토벌에 나갔다가 순직해 대공경찰가족으로 알려져 李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않았다는 가족들의 말이다。

◆崔忠彦은 외항선 기관장 아버지(52)가 외국에 출항중이고 어머니(46)와 누나 여동생과 함께 생활해왔다。

1남2녀중 외아들。부산 B고등학교를 졸업。지난해 B大공대 장학생으로 합격했으나 高神大 의예과에 지망했다。학교성적은 우수한편이고 성격은 비교적 온순하고 내성적이어서 바깥출입이 없으며 어머니가 친구사귀기를 권유할 정도였다。

◆朴願植은 상업하는 아버지(64)와 어머니(58)와의 3형제중의 막내。부산H고등학교를 졸업。高神大에 입학했으며 학교성적은 우수한편이고 성적은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편이다。

李鎬喆、서울서 檢擧

文富軾등과 잘알아 배후조종 調査

李鎬喆의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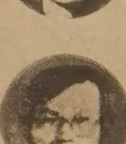
한편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명수배중이던 李鎬喆(24)도 30일정오께 서울中區明洞2街33의4 별셋주점 (주인 유치선·62)에서 종업원으로 가장、숨어있다 검거됐다。

李는 7개월전부터 월7만원을받고 이주점의 웨이터겸 그릇닦이등의 일을 해왔는데 종업원들에 의하면 李는「성철」이란 가명과 경남昌原이 고향으로 고교를졸업하고 생계를위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했을뿐 자신의 신분은일체감추고 있었다는것。

경찰은 李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을 전후해서 부산을 왕래했으며 주범文과도 평소 친해 이사건에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배후에서 조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李는 文에게 10만원을 빌려준 김화식과도 잘알고있으며 평소 이들을 만나면『시위라도 한번 해야하는것 아니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범인들이 잡히던날 서울에서함께검거된 李鎬喆。



◇이번사건수사때 검거된 光州미공보원방화범 丁淳詰。

현상금 3천만원 提報한 2명에게

현상금

경찰은 이번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해준 김명자씨 (40·여·가명 부산中區寶水洞)에게 상금 2천만원을、최선달씨(45·가명 상업·부산東萊區)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키로했다。

김씨는 사건당일인 지난18일하오2시께 범인들의 최종모의장소인 산장여관 지하계단앞 골목길에서 20대여자범인 2명이 휘발유가든 물통을 들고 美문화원쪽으로 급히달려가는것을 봤었다고 제보했으며 최씨는 지난 22일 임시반상회를 통해 동향이수상하고 몽타지 수배인물과인상착의가 비슷한인물이 있다는 제보를해와 수사에 결정적단서를 제공했다。

市民협조 감사

金釜山市長

金武然부산시장은 30일 사건의 조기해결은 시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수사당국의노력이 혼연일치된 결과라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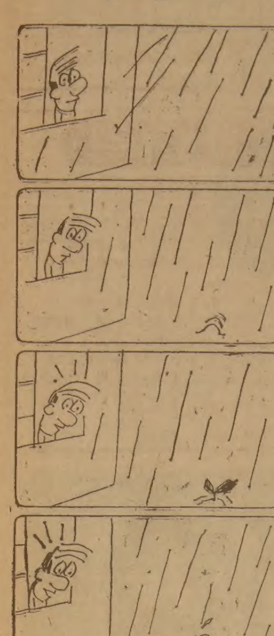
순경넷 1계급특진

【釜山】부산시경은 30일 부산미문화원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공이큰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계 최나범경위 (47) 부산시경 강력계공길용경위(43) 강광운경사 (42)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계박상운순경(42)등 4명을 일계급 특진키로 했다。

"防衛兵에 건빵급식" 請託 5백만원 收賄 경관拘束

치안본부수사대는 30일 경찰에 근무하는 방위병의 급식품목을 건빵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받고 업자로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받은 치안본부작전과 훈련진도계근무 姜熙顯경위 (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빵제조 [illegible] 放鶴洞42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姜경위는 지난2월4일 서울中區忠武路3가소재「有田」이란 한화식집에서 건빵제조업자인 李씨로부터 경찰이 관리하고있는 방위병 급식인 라면대신 건빵을 급식품목으로 지정해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빗길過速트럭、유치원버스받아

歸家어린이등 41명 중경상

원장은 사망 果川산업도 2m 아래논바닥굴러

30일낮 12시50분께 경기始興郡果川面下2里앞 京水산업도로에서 좌회전하던 과천유치원소속 25인승 마이크로버스를 과속으로달리던 8톤트럭이 들이받아 마이크로버스에 타고있던 과천유치원 원장 이만숙씨(45)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김이태군(6)등 원생39명과 보모 2명등 41명이 중경상을입고 서울강남성심병원과 안양한성병원등에 분산 입원치료중이다。

이날사고는 경부고속도로쪽에서 과천쪽으로달리던 삼양판지 소속 경기 7가8618호 8톤트럭 (운전사 송대길·37)이 원생들을 태우고 좌회전하던 경기 5나1995호 25인승 미이크로버스(운전사 김일환·38)를그대로 들이받아 마이크로버스가 도로변 2m아래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져일어났다。

이 유치원 마이크로버스는 이날 낮12시40분께 유치원생들을 집으로 태워다 주기 위해 정원보다 17명이 많은 42명을 태우고 유치원을 출발、하2리 진입로로 좌회전하려는 순간 빗길을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에 들이받쳤다。

사고가 나자 이곳을 지나던 각종차량 10여대가 논바닥에 굴러떨어져 버스속에갇힌채울부짖던어린이들을끄집어내병원으로긴급수송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가 운영하고있는 과천유치원은 70여명의 원아중 직선거리 1.5km 이내에 거주하는 30여명은 매일 도보로 귀가시키고 나머지 원거리에 사는 40여명의 어린이들은 마이크로버스로 귀가시켜왔다。

大田일원 새벽 地震

어제 餘震3회…住民잠설쳐

震度2

【大田】올들어 서울과 경북 울진에서 지진이 잇달아발생한데이어 한달만인 30일 새벽6시10분께 충남 大田에서 또 진도2의 지진이 발생、단잠을 자고있던 忠淸지방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날 지진은 초진에 이어 30초간격으로 3회에걸쳐 여진이 발생했으며 창문이흔들릴 정도였다。

지난번 지진에 놀랐던시민들은 잠자리에서 깨어나 기상대등에 전화를 걸어 피해여부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기도했다。

주부 金英子씨(42·大田市三成洞 빌라맨션11층)는『창문이 흔들려 깜짝 놀라 문밖으로 뛰쳐나왔다』면서『측후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으나 지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진으로 피해는 전혀 없었다。

大田측후소는 이번 지진의 여진이 앞으로 또 있을것인지 또는 완전히 소멸됐는지에 대해선 좀더 관찰해보아야 알수 있을것같다고 밝혔다。【聯】

光州倉庫에불 피해 3천만원

【光州】30일 상오6시25분께 광주시 동구충장로3가4 대광서점 (주인 金永在·38) 뒤쪽 창고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대광서점 내부와 인근 3층상가건물 (연건평 2백64평) 2~3층 내부를 반쯤 태우고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재산피해는 3천만원(경찰추산)。【聯】

탈영병 自爆

歸隊종용 동료등 셋死亡

【議政府】29일 낮12시께 경기坡州郡 汶山읍 汶山1里69 낙원여인숙에서 육군모부대 탈영병 池모병장이 폭발물을 터뜨려 자신과 尹영미양(23·汶山읍仙遊1里 꽃인살찻집 종업원)·육군헌병 ○○지구 파견대 李모상사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육군○○부대 朴모중령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27일 인근 소속부대에서 폭발물3개를 훔쳐 탈영한 池병장은 이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尹양과 여인숙에서 동숙중 朴중령과 李상사가 여인숙에 찾아와 귀대를 종용하던중 폭발물1개를 터뜨려 사고를 냈다。

경찰은 군수사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등을 조사중이다。【聯】

學校금고現金훔쳐 발각

國校生이 음독자살

29일하오5시께 서울麻浦區葛峴洞505의15 李선우씨(41·운전사)집안방에서 장남 상관군(12·葛峴국교6년)이 극약을마시고 신음중인것을 어머니 金종완씨(38)가발견、병원에옮겼으나 중태다。

어머니 金씨에의하면 이날 일을나갔다가 돌아와보니 상관군이 배가아프다고해 물어보니 한참후『약을 먹었다』고 털어놓았다는것。

담임교사 金淑子씨(36·여)에 의하면 상관군은 27일하오5시30분께 친구 崔모군(12)과 함께 학교본관4층에 있는 교실에 들어가 캐비닛을 열려다 수위 李원수씨(48)에게 들켰는데 李씨의 추궁끝에 지난17일 담임교사의 캐비닛을 망치로 뜯어 현금4만9천원을 훔친 사실을 털어놓았다는것。

한편 담임교사 金씨는 29일하오 상관군의 비행사실을 부모와 상의、선도하기위해 가정방문을 갔다 부모를 만나지 못했는데 상관군은 자신의 비행을 부모가 알게된 것을 겁내 극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있다。

「女王」의 기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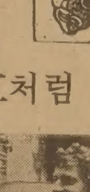
엘리슨·로의 코치 엘리어트氏

"白磁 굽는 陶工처럼 정성들였다"

역시 이번 82국제마라톤의 최고스타는 뉴질랜드의 鐵脚美人 엘리슨·로(25)이다。여자 마라톤의 세계기록 보유자이기도 하지만 암팔진 암사슴 같이 날렵한 모습이 경기전부터 관심의 초점이었다。名不虛傳이랄까。그녀의 레이스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균형과 조화의 미에서 그날코스를 메웠던 7천여 마라토너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레이스를 지켜본면 엘리슨은 그림자처럼 옆에 따라붙은 코치 게리·엘리어트씨(34사진)의 존재가 있음으로해서 진주처럼 빛 날수가 있었다。



두사람은 정다운 연인처럼、다정한 오누이처럼 난코스였던 1백5리 길을 부드럽게 누벼갔다。그것은 한폭의 그림처럼 감동적인 장면의 계속이었다。

엘리어트는 자신도 마라토너라고 말한다。81년 뉴욕 마라톤에서 2시간24분52초를 기록한、말하자면 중위권의 선수다。그러나 코치로서는 세계정상급인 사람。오늘의 엘리슨을 大成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다。

엘리슨을 직접 지도하기 시작한 것은 80년초。테니스선수였던 엘리슨이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코치를 자청했다。경력20년의 엘리어트를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였다。

엘리슨은 한마리의 駿馬였다。엘리어트는 매일같이 20km의 로드워크를 하며 그녀를 길들여갔다。호흡조절법을 알게 해주고 달리는 자세를 고쳐주었다。천부의 재질과 타고난 체격의 엘리슨은 군더더기 없는 러닝자세를 익혀 가고 있었다。거기다가 코치와의 호흡까지 완전일치를 이뤄「신기록」이 나올수가 있었다。

엘리어트는 달리며 엘리슨의 표정까지 읽는다。그리고 순간마다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리드해주곤 하는 자상한 선생님이다。

『마라토너는 달리는 기계가 아니다。나는 그녀를 도자기 굽듯 정성들여 연구하고 시정점을 개선해 갔다』

엘리어트는 마라토너는 외롭지않다고 말한다。코스연변의 풍경과 관중과 대화를 나누며 달리기 때문이란다。

이번에 끝까지 함께 완주한것은 그녀의 연습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다고。

그의 희망은 그녀가 남자인 자신의 기록까지 깨어 주는것。엘리슨은 지금 2시간25분29초의 기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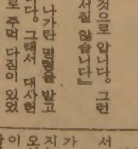
엘리슨이 부럽다。그리고 그녀를「女王」으로 만든 기관사 엘리어트의 존재가 더욱 부럽게 느껴진다。【鄭在龍기자】

東京 국제가요제서 文珠蘭 최우수歌唱賞

○…가수文珠蘭이 28일 저녁7시 東京 武道館에서 거행된 제11회 東京국제가요제에서「멀리있는 별」을불러 최우수 가창상을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美·日·英·佛·伊등 세계8개국 14명의 가수들이 참가한 이날 가요제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한 文양은 日人작곡가 三木大輔씨가 작곡한「멀리있는 별」을 1절은 일본말로、2절은 우리말로불러 갈채를 받았다고한다。

이날 가요제의 그랑프리는「당신만을 위한 발라드」를 부른 美國의 존·오바니언이 차지、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文珠蘭

中高 아이스하키

제16회 전국중고교아이스하키연맹전이 8개교팀이 출전한 가운데 30일 동대문실내링크에서 벌어졌다。

첫날 A조에서 大一高와 徽文高는 각각 培文高·仁川體高를 물리치고 서전을 장식했다。

◇첫날전적

▲A조

고대교일 3 (0 3 0 / 0 0 2) 2 고배교문

고휘교문 6 (3 2 1 / 2 0 1) 3 체인고천

漢陽大 역전승

전국大學야구

제1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야구대회 개막일인 2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1회전 경기서 漢陽大는 1년생5번 金健友의 결승타점을 비롯한 4타수3안타 4타점 수훈으로 建國大에 6―4의 역전승을 거두었다。

◇첫날1회전

한양대	000	230	010	6
건국대	010	000	012	4

孫甲道·鄭承基 3위

월드컵레슬링 團體戰은 4위

82년 월드컵 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 (미국토레도市)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은 29일 개인전에서 孫甲道·鄭承基등 두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그러나 단체전에서는 5개팀중 4위에 머물렀다。

29일 최종일 경기에서 플라이급 孫甲道는 지난해 유고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세르게이 (소련)와 아납(미국)에게 판정패했으나 캐나다、아프리카、이라크선수를 차례로 꺾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밴텀급의 신예 鄭承基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4위인 캐나다의 세인에게 폴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興行師 가네히라 복싱界 영구追放

【東京29日=聯】日本권투위원회(JBC)의 호사까·마고또 커미셔너는 29일 복싱건전화 대책특별위원회의 권고대로 약물의혹과 관련、물의를 빚은 가네히라(金平)교오에이체육관회장의 라이선스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호사까 커미셔너는 이날『의혹의 진위에관계없이 지금까지보도된 관계자의 증어만으로도 가네히라씨가 페어플레이와 성실이라는 JBC 규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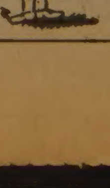
世界戰 출전선수에 血液샘플 保管시켜

한국拳鬪委결정

한국권투위원회 (KBC) 의무위원회는 가네히라스캔들과 관련、앞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세계타이틀매치때 출전선수의 소변과 혈액을 채취 보관키로 했다。

KBC관리의사·감독관 [illegible] 부는 출전선수의 소변샘플병 매니저가 서명한 소변샘플병은 일정기간동안 KBC에보관됐다가 일정기간후 폐기처분된다。

또한 의무위원회는 국내 A급선수 1백명과 심판15명을 4월10일까지 정밀진단、건강카드를 작성키로했다。



583·2861

流星의 賊 <346>

李炳注 作 李友慶 畫

孤獨한 英雄 ①

홍계남이 분사를 이끌고 임진강변 연천 근처에 당도했을때는 5월19일 저녁나절。전투는 이미 끝나고 도원수 김명원은 이미 퇴각한 후이었다。강변 이곳 저곳에 누누한 시체만 남아있었다。그사이를 적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것은 필시 도하작전(渡河作戰)을 서두르고 있는 때문일 것이었다。

홍계남이 분사들은 산속 이곳 저곳에 매복시켜 놓고 자기도 숲속에 몸을 가누어 석양이 비끼고 있는 전장터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전투를 했기에』

하고 홍계남이 한숨을 쉬었다。

『아군은 이미 북안(北岸)으로 철수 했다고 들었는데 전투는 남안(南岸)에서 있었던 모양이군요』

하고 조인식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투에 패배해도 납득할 수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모두 남안에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수 없구나。건너오다가 당한것 같으니 말이다』

제남이 고개를 갸웃했다。

『해가 지길 기다려 패잔병을 한번 찾아 봅시다。이근처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니까요』

조인식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하자。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행동지침도 작정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하고 홍계남은 수하대(手下隊)를 세개분대(分隊)로 편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제1척후대는 강동쪽 2십리허까지의 적정을 살펴라。제2척후대는 강 서쪽의 적정을 살펴라。제3척후대는 적이 없는 산속을 뒤져 패잔병들을 모아라。부상한 자는 그자리에 두고 움직일수 있는 놈들은 이리로 데리고 오란』

19일의 늦은 달이 뜰 무렵 제3척후대가 패잔병 20여명을 데리고 왔다。우선 준비해온 주먹밥으로 요기를 시키고 전투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를 불렀다。세사람이 나타났다。

제남이 우선그중 하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뭔가』

『우철현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한응인 도순찰사의 진영에 있었읍니다』

『그럼 평양에서 왔단 말인가』

『예』

『평양의 사정은 어떠하던가』

『말이 아니올죠』

『말이 아니란 것은?』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런 때문에 군령(軍令)이 제대로 서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의정 유홍은 임진강 전투에 나가란 명령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들었읍니다。그래서 대사헌 이헌국이 면전에서 힐난하여 서로 주먹 다짐이 있었다니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응인이 도순찰사로 왔단 말인가』

『그러 하오이다。그러 하온데…』

하고 우철현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 하온데 어쨌단 말인가』

『우리가 직접 모시고 있던 상사이긴 하오나 이어른이 졸렬하기 짝이 없읍니다』

『한응인이 졸렬하다구?』

『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4>

朴婉緖 作 金光培 畫

明暗 ⑧

『자아、어머니 모시고 한 장면』

사진사의 얼굴에 웃음 잠은 짧은 작부의 표정같은 비굴한 애교가 넘쳤다。카메라 앞에 가진 사람이 최귀해서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인 장소에서도 곧잘 기일쑤인 터에 연거푸 사진을 찍계되니 웬 떡이냐 싶은 모양이었다。

노파가 작은 몸을 힘껏 흔들면서 사진 찍기를 거부한 낌새를 보였다。

『나 가볼께』

수지는 희 몸을 날려 돌아서려다말고 무슨 마음에선지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고 노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천 먼저 가봐야겠어요。저희 대소가 어른들이 스무명도 너머 와계시거든요。너무 오래 기다리시게한 것같아요。그럼 나중에 못뵐지라도 안녕히 가세요』

노파가 완연하게 위축하고 실망하는걸 보고서야 수지는 그 곳을 떠났다。자신의 유치하고도 악랄적인 앙갚음은 곧 씁쓸한 후회를 남겼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울데갈데없이 막막하고 초라해진 자신을 느꼈다。

『여봐、수지야。약속이틀리지 않아』

인재가 허둥지둥 따라오면서 말했다。

그전날까지도 인재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할지 안할지는 미정이었다。어머니가 오시든 안오시든 수지는 식이 끝나면 자기네 식구는 적당히 따돌리고 인재와 오붓하게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할 작정이었다。그들의 계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처음부터 제외되어있었다。

『어머니 때문에 삐쳤어? 오후차로 내려가실텐데 뭘』

『그래。점심이나 대접해드리면 우리는 곧 단둘이만 있을수가 있어』

『어머니 때문이 아냐。자기만 어머니 있는 게 아니잖아。우리 식구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주인공이 빠져서 섭섭시켜드리고싶지 않아』

『그럼 내가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 안될까?』

『그쪽이라니?』

『자기네 식구한테 나 좀 소개해주면 안되나말야?』

『우리 식구 모다 [illegible]야。자기 엄마보다 훨씬 더。자기 자신 있어?』

『아무 때 당해도 한번은 당해야하는 거라면』

『관두겠어。아직은 시기상조야』

『재기할 뭐가 이래?』

『난 뭐 기분 좋은 줄 알아。나중에 연락할께』

수지는 인재가 그 이상 더 치근대지 못하게 여봐란듯 쏘아붙고 달음질 쳤다。

졸업식의 축제분위기는 빠르게 사위어가고 졸업생과 학부모들은 어디론지 사라져가고 있었다。떨어뜨려 짓밟힌 꽃다발은 남루하고 반값에 주겠다고 들이대는 꽃장수의 마지막 꽃다발은 슬프디 슬펐다。

졸업이란 어차피 그런게 아닐까? 코딱지만한 지식을 밑천으로 적당한 직장에 눌러앉아 밥벌이를 하며 그럭저럭 안락하게 살수있는 출발을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하는 거야말로 촌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은 아 [illegible] 의 학사모를 잠시 벗어 쓰고 감격의 눈물을 짜는 노파의 몫으로 돌리면 되거니와 [illegible] 녀의 환상이야말로 당치 않았다。유별난 삶이란 함부로 있는것도 아닐테고 더군다나 졸업과 함께 시작될리도 없었다。

수지는 인재를 그렇게 뿌리친 걸 후회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래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W. ☎ : 535-4441 디자이너 MR.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무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W.(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E. Tor.Ont.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TOR.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W. ☎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6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Jamestown)박영숙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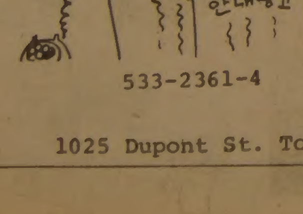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E.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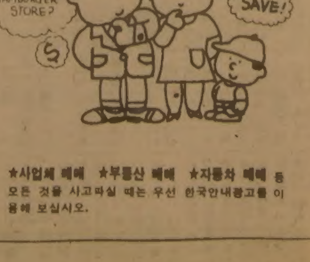
귀 사업체는 —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신청은
☎(416) 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스토아 유경험자 캐셔구함 (남,녀관계 없음)
학생 환영함. FULL TIME도 가능함.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전화: 368—8147(오전중에 연락바람)

유 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 : 656—3020 (Davenport x Oakwood)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다운타운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분 (미시사가지역)
(Burahamthorpe Rd. W. × Mavis)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 토 전화: 769—9854, 762—1572

입주하셔서 4명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아 주실분 찾습니다.
전화 : 827—7057 Mrs. 최

매매및 양도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사정에 의해 급매코져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K. C. HERLT REAL ESTATE CO.
TEL : 487—8187 Mr. Martin

맥스 밀크 프렌차이스 팝니다.
연락 : 368—0686, 292—2024 (저녁)

여자용 오메가금시계 급매.
(Brand New, 보증서 포함)
전화 : 533—2364 Mrs. 김

가게 급매(4 베드룸 전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1) 큰 설합 5개 달린 옷장 (Oak) 급매
(2) LIVING ROOM WALL UNIT 3 PCS.
(3) 어린이 자전거 GOOD CONDITION ($30.—)
(4) 공단 침대보 (QUEEN SIZE) 및 등등
전화 : 769—4366 오후 6시 이후
MRS. 김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바쁜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300
리 스 : 10 Years
Call :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개시.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 m—7 p. m.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지렁이 사업을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있음. ☎ 651-6543(Mr. Lee)

"MIKE MUNCHIES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2812 BATHURST ST.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가정의 벗 한국일보

좋은 위치에 자리잡아 많은 단골손님을 갖고 있는 미용실 팝니다.
장비 : 드라이어(6개), Heat Light, Styling Chairs(5개)
Basins(3개), Waiting Area
전화: 255—9324 Carmen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Corner에 위치한 가게 세놓읍니다.
(St. Clair × Silverthorn)
1734' St. Clair. W. 전화 : 742—0434

79 OLDS CUTLASS SUPREME
305 Aircon AM/FM Stereo Cassette
38000마일 $7,000 전화 : 223—2449 윤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VARIETY STORE 시설과 스탁 급매
2607 Eglinton W.
전화 : 789—0501 Mr. Singh

하우스 렌트

셋방 있음.
1 베드 · 룸 + 부엌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웅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복덕방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A.E. LEPAGE (우덕이)
☎ : 741—9170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e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휜치)
전화 : 223—788'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 869—0589,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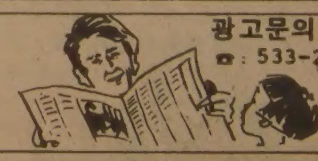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